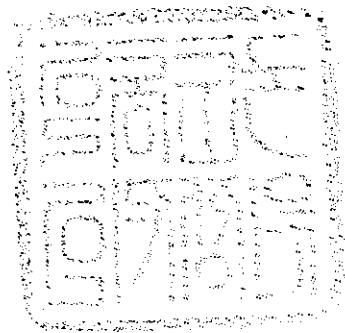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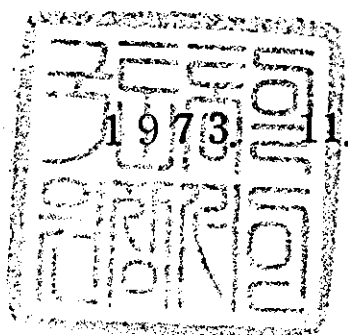
# 6·23宣言에 對한輿論指導層의 意識構造分析과 對策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研究機關：全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 양 중 의



# 目 次

第 1 章 序言 (多極化時代).....	3
第 2 章 分斷國 問題.....	9
第 3 章 南北韓의 統一政策.....	12
a) 北韓의 挑戰.....	13
b) 韓國의 統一努力.....	21
第 4 章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宣言.....	31
a) 背 景.....	31
b) 內容分析.....	46
c) 北韓의 反應.....	53
第 5 章 6.23 宣言에 對한 輿論指導層의 意識構造.....	56
a) 分 析.....	56
b) 對 策.....	59
第 6 章 結 言.....	62
< 討議經過抄錄 >.....	67



## 第1章 序 言 (多極化時代)

70年代에 접어들면서 國際關係에 커다란 變化가 일어났다. 이른바 「테탄트」가 「유럽」에서 부터 일기 시작하여 「아시아」와 韓半島에도 찾아 든 것이다.

지금 國際秩序는 美·蘇協調 美·中和解 中·日修交 및 越南休戰으로 因하여 戰後의 對決과 否定의 兩極體制가 崩壞되고 平和共存과 實利追求의 多極體制로 變貌하고 있다. 韓半島의 周辺情勢도 美·蘇·中·日의 四大強國에 依한 國際的權力構造가 改編되는 가운데 冷戰體制에 대신할 解氷基調의 共存秩序가 急速度로 形成되어 가고 있다. 이같은 새로운 國際秩序의 構造的 變遷속에서 韓國은 어느 나라 보다도 가장 急激한 環境變化를 겪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도 自明한 일이다. 그리하여 韓國은 緊張緩和와 平和共存이라는 오늘 의 激變하는 國際潮流에 어떻게 適應해 나갈까 하는 새로운 方向 摸索에 苦心하고 있다. 激動하는 周辺環境에 能動的으로 適應하고 새로운 進路를 定立하는 過程에서 지난 4半世紀의 오랜 否定과 斷節을 超克하고 南北赤十字會談과 7.4 南北共同聲明으로 지루했던 極限의 對峙에서 接觸과 對話의 길을 트게 한 것도 그러한 努力의 結果이라고 할 수 있다. 마침내는 6.23 宣言으로써 韓半島의 緊張緩和와 平和的 統一外交의 制度化를 보게 된 것이며 이는 北韓에 대한 平和壓力의 布石을 일응 마무리 하는 大勇斷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美·蘇를 頂点으로 하는 兩極体制에서 多極体制로 變化한 動因은 무엇이며, 南北韓의 緊張緩和를 재촉한 多極化構造가 갖는 意味는 무엇일까?

도리켜 볼 때 第2次大戦以後 美国의 世界政策의 基調는 共產主義勢力의 膨脹을 沮止하는데 있었다. 이것이 이른바 封鎖政策 (containment policy) 으로 나타났는데 여기에는 두가지의 條件이 前提로 되어 있었다. 첫째는 史上 처음으로 하나의 統一된 共產勢力圈이 形成되어 있었다는 것이며, 둘째는 共產勢力에 効果적으로 對抗할 수 있는 勢力은 美国과 그들 中心으로 하는 自由陣營뿐이라는 것이 있다. 다같이 第2次大戦의 戰勝国인 美·蘇兩大國은 서로 相克하는 「이데올로기」를 追求하면서 마치 磁石의 兩極처럼 政治影響力의 磁力圈을 形成하여 戰後 國際社會를 兩分하고 美·蘇의 磁場속에 完全히 掌握하였다. 이리하여 國際的 勢力構造는 美·蘇 두개의 超強大國을 中心으로 形成되었으며 自由陣營과 共產陣營의 對立은 敵對的性格을 띄고 冷戰을 展開해 왔다. 다시 말하면 戰後問題의 調整過程에서 周邊地域에 對한 共產主義의 扶植 浸透 膨脹을 노리는 蘇聯과 對蘇封鎖政策을 本格化하고 友邦에 對한 經濟·軍事援助를 通하여 政治的 同盟化에 注力하는 美国은, 東西冷戰의 主役으로서 兩極体制를 確立하였다. 兎로 韓國戰爭의 勃發은 冷戰政策의 가장 代表的인 事件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美·蘇 兩國은 對決狀況을 지속하면서 相互 不信과 國際緊張을 조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60年代에 와서는 中共의 進出과 群小新生獨立國의 大挙 登場, 中·蘇 理念紛糾의 深化와 獨·日의 經濟大國으로의 成長등은 漸次 兩極의 磁力弱화를 갖어 왔고 더욱기 美·蘇對決을 中心으로 하는 從來의 冷戰政策이 世界를 支配하는데 效果的인 것이 못된다 는 것을 認識케 하였다. 그와 同時에 美·蘇는 兩國의 共同利害의 所在를 어느 程度 意識하게 되어 이른바 美·蘇協調 共存體制를 形成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國際情勢의 變化와 兩極의 影響力 弱화는 마침내 70年代의 國際權力構造에 質的 變化를 갖어 오고야 말았다. 戰禍에서 再起 復興한 歐洲와 日本이 美·蘇의 一方的 支配에서 脫皮 獨自的인 極을 이루어 가고, 傳統的 強大國의 面貌를 되찾은 中共이 또하나의 極을 이루게 됨에 따라 國際社會는 美·蘇·中·日·歐洲 ( EC )의 五大勢力圈을 主軸으로 하는 多極構造를 갖추게 되었다.

참으로 오늘날의 國際情勢는 「 닉슨 」 大統領이 1971年 7月 「 켄사스 」 市에서 말한바와 같이 多極化傾向으로 치달리고 있다. 이같은 多極化의 動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戰略的 軍事力인 核武器가 遂行할 國際政治的 役割의 有効性이 相對적으로 低下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는 二次大戰以後 지탱해온 美國의 國際秩序를 追求하려는 美國의 能力에 限界가 왔음을 들 수 있다. 이제는 美國이 世界의 警察, 世界의 銀行, 世界의 立法者로서의 能力에 限界가 온 것이다.

셋째는 中·蘇對立과 共產陣營 内部에서의 多極化現象을 들 수 있다. 蘇聯의 一元的 指揮體制가 中共의 抬頭로 挑戰을 받게 되었고 東歐圈國家들도 自律權을 主張하고 있다.

넷째는 國際社會에 있어서 여러나라들 사이에 實力平準化傾向과 中小國들의 覺醒이 일고 있음을 들 수 있다. 지난 날에는 比較가 되지 않았던 中共의 政治力量이 急速히 上昇하고, 美國과 E C 및 日本과의 經濟的 平準化가 이루어져 가고 이제는 美國의 絶對的 優位는 허물어 지고 말았다. 그리고 中小國家들도 核戰爭의 制限性에 便乘하여 個別的으로 또는 集團的으로 그들의 政治的 經濟的 自律權을 가지려는 覺醒을 發揮하여 世界秩序의 多元化趨勢를 加速化시켰다. 1)

한편 多極體制의 意味는 이런 構造上의 變化 못지 않게 極의 性格自體의 變化에서도 찾을 수 있다. 兩極體制의 特性은 兩極의 對立이 政治思想 즉 「이데올로기」의 對立 및 이에서 派生하는 共產革命 推進勢力과 그 防止勢力의 斗争으로 特徵지을 수 있었다.

그러나 多極體制로 表現되는 70年代의 世界秩序에서는 이런 「이데올로기」의 對立이 漸次 無意味해지고 赤裸裸한 國家利益이 對立의 前面에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國家들의 對外關係에서 「이데올로기」의 要素가 급격히 줄어들고 그에신 現實主義的 立場이 크게 作用하고 있음을 뜻한다. 個別國家들은 戰略外交的 競争에서 自己들의 對外的 行動範圍를 擴大시키려 할 뿐만 아니라 「이데올

로기」的인 制約性을 벗어나 國家利益이라는 現實的 相互關係에 重點을 두고 있다. 이러한 點에서 現代의 國家間的 關係는 한층 더 複雜해지고 있다. 戰後의 「이데올로기」에 基礎하였던 敵과 我의 明確한 区分이 國際政治上에서 說得力을 喪失하게 되었으며 그 대신 개별국가들의 國家利益이라는 보다 더 現實的이고 複合的인 次元으로 變貌하고 있다. 그리고 西獨·蘇聯不可侵條約, 西獨·폴란드不可侵條約, 東·西獨基本條約, 伯林協定, 美·中共關係改善등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現狀을 그대로 認定하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이와 같은 國益追求와 現狀維持의 多極體制는, 「冷戰聯合體제의 崩壞」·「外交議題의 最優位에 非安保問題의 提起」·「友好와 敵對關係의 多樣化」의 세 가지로 集約할 수 있을 것이다. 2)

要컨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70年代의 國際的 環境은 첫째 東·西間의 和解무드를 基調로 하고 緊張緩和와 共存을 指向하고 있다.

둘째 國際政治秩序도 美·蘇兩極構造에서 多極構造로 바뀌었다. 勿論 美·蘇兩國은 超強大國으로서 世界에서 如前히 強한 發言權과 影響力을 가지고 있는 것은 事實이지만, 相對的으로 兩國의 發言權과 影響力은 後退하고, 中共·日·歐洲( E C )가 새로운 強大國으로 登場하였다.

셋째는 陣營別의 普遍的인 理念對立이라는 對決意識이 相對的으로 後退하고 個別國家들은 「이데올로기」의 差異를 超越한 敵對國家間的

關係改善으로 스스로의 國家利益의 守護 및 伸張을 꾀하여 繁榮을 다짐하고 있다.

戰後 「이데올로기」를 中心으로 한 美·蘇兩極體制下의 冷戰時代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 國際政治는 現狀의 打破가 아니라 現狀維持를 基調로 하는 平和共存의 時代로 접어 든 것이다.

## 第2章 戰後處理의 未決問題—分斷國家

오늘날 地球上에는 美·蘇 冷戰政策의 私生兒인 4개의 分斷國家들이 있다. 즉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獨逸 中國 越南등 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第二次世界大戰의 直接的結果로 國土와 民族이 分斷된 本來的意味의 分斷國家는 우리나라와 獨逸이고 中國과 越南은 冷戰에 바탕을 둔 內部的革命에 依하여 國土가 分斷되었다. 既往의 大國支配的인 兩極秩序下의 冷戰이라는 時代的背景과 新生國家들의 政治的 經濟的 不平等의 是正要求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世界紛爭과 不安의 火藥庫로서 가장 悲痛스런 試練과 敬遠을 겪어야만 했던 것은 分斷國家들이었다. 戰後問題의 調整過程에서 特定한 條件下에 兩分된 國家들—마땅히 하나의 國家여야만 할 國土와 國民이 非情스럽게 兩分된 「分斷國家」의 發生은 美·蘇 및 共產主義勢力과 反共產主義勢力과의 對決의 所産이었다. 따라서 美·蘇冷戰이 精力的으로 推進했던 世界의 兩極 分化過程에서 「分斷國家」들은 發生했고 「分斷國家」問題는 冷戰의 問題로서 展開되었다. 그러나 韓國戰爭, 越南戰爭, 台灣海峽危機, 西伯林封鎖등의 「分斷國家」問題의 展開과 不安定은 冷戰 激化의 原因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分斷國家」問題는 항시 世界平和와 戰爭에 關聯되는 問題로서 展開되고 發展했던 것이다. 美國의 힘의 優勢에 基盤한 世界秩序를 받아 들이지 않으려는 蘇聯의 挑戰과 이에 対応하는 美國의 對共封鎖政策의 追求라는 狀況下에서는 分斷國의 問題가 正常的인 外交

活動을 통하여 合理的인 解決의 길로 들어 설 수 없었기 때문에 「分断国家」問題의 展開는 國際的 緊張의 加速化와 때로는 局地的 熱戰化로 發展하여 間接戰爭=代理戰爭의 性格을 띄기도 했다.

東·西「이데올로기」와 強国政治의 犠牲으로 他意에 依하여 兩分된 「分断国家」의 特徵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오늘날 世界政治에 있어서 不安地域 또는 紛爭地域으로 있으며, 따라서 世界平和를 爲해 不滿足스러운 狀態에 있는 地域이란 點에서 共通的인 特徵이 있다.

둘째로 따라서 이 地域의 現狀을 固定化하고 이를 보다 安定된 狀態에서 分断을 公式化하고 制度化하려는 強大國의 政策 對象地域이 되고 있다.

셋째로 이들 分断國家들은 모두 民族的 單一性을 주장하고 있으며 언젠가는 그리고 어떠한 方法으로든지 再結合되어야 한다는 民族統一의 熱意가 強하다는 點이 共通的이다.

네째로 이러한 再民族統一 또는 再結合의 正當하고 神聖한 要請은 強大國들의 勢力擴張競爭이나 他方에 對한 對抗措置로 쉽게 利用될 수 있다는 性質의 것이다. 3)

따라서 오늘날 國際政治에서 많이 論議되고 있는 이른바 分断國家의 問題는 國際政治上의 問題國家로서의 性格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強大國政治의 論理는 分断의 解消보다는 分断의 現狀 凍結을 願하고 있다.

한편 分断国家는 地域的인 事情에 따라 각각 國際政治展開에 自  
國 實情에 適応할 政治理念과 政治制度를 確立하여 政策을 調整해  
가는 趨勢를 보이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4)

- ① 独逸은 独逸을 둘러싼 周边強大國이 独逸의 統一을 願치  
않기 때문에 한 民族 두개의 独逸國家 形成으로 發展하고  
있다.
- ② 「 라오스 », 「 캄보디아 », 越南, 越盟( 베트콩 包含 ) 等 諸國은  
美, 越盟間에 合理的인 休戰協定을 締結하고 「 인도차이나 」 地域  
國家의 自衛態勢 補強志向의 中立化調節을 摸索하고 있다.
- ③ 韓半島에서는 한 民族, 한 國家志向의 統韓調節을 위해 南北  
韓間에 7.4 共同聲明에 立脚해 南北赤十字會談과 併行한 南北  
調節委員會를 構成하여 外勢의 影響力을 韓半島에서 極小化  
내지 中和시키면서 內政의 忠實을 期하는 平和統一接近의 類型  
을 定立하고 있다.
- ④ 台灣問題는 美國은 中國의 一部로 認定하고 있는데 對하여  
蘇聯은 「 두개의 中國 」을 認定하는 態度를 取하고 있다.

### 第 3 章 南北韓의 統一政策

이미 말한바와 같이 第 2 次大戰이 人類社会에 초래한 가장 큰 悲劇은 몇 개의 分断國家가 形成되었다는 事實이다. 不幸히 우리 韓國도 그 하나에 속하며 他意에 依한 國土의 兩断을 強要 當하였다. 이같은 人爲的 國土分断은 自然히 民族的分裂을 結果했을뿐 아니라 또한 思想的分裂을 가져 왔다. 韓半島에는 38度線을 分界線으로 하여 南北으로 異質的인 두개의 政治·社会体制가 對峙하게 되고 드디어는 처절한 同族相殘의 悲劇까지 展開케 했다. 이리하여 南北間의 人爲的障壁은 過去 4半世紀동안 文字 그대로 完全한 것이었으며 高度로 理念化하고 武裝化한 南北間의 對決과 緊張을 解消하기 위한 平和的接觸이나 融合의 機會는 断絶된채 現狀維持와 緊張緩和의 70年代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分断」의 問題는 畢竟 「統一」의 問題이기도 하다. 兩分된 分断國은 再結合을 願한다. 이것은 分断의 瞬間으로 부터 시작된 民族의 共通된 悲願이며 統一의 瞬間까지 꺼질 수 없는 民族精神의 불길이라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우리의 統一을 向한 執念은 드디어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談를 契機로 오랜 「断絶의 障壁」을 무너트리고 極限的인 對峙를 超克하여 「南北對話」의 길을 텃으며 다시 6.23 特別宣言으로 平和統一外交政策의 制度化에 마무리를 함으로써 民族統一史의 새章이 펼쳐져 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南北統一政策의 展開過程과 歴史的背景을 살펴 보기로 한다.

#### a)北韓의 挑戰

事實上 北韓의 共產化는 1945年8月 蘇聯의 軍事占領으로 시작되었다. 金日成은 蘇聯軍隊가 進駐하고 있는 有利한 條件을 利用하여 「革命基地」를 強化하는 政策을 推進하였다. 1948年 8月15日 南韓에 樹立된 大韓民國과 맞서기 위하여 1948年9月 9日 所謂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樹立하고 韓半島에서 合法的인 政府라고 自處하게 되었다. 다음해에는 이른바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의 宣言을 通하여 自主的原則에 依한 南北總選舉를 實施하고 南北統一을 具現하자는 平和統一論을 提案하여 왔다. 이러한 提案은 事實은 一部人士의 呼應을 얻어 가면서 南韓의 對共 戰列을 分裂시키기 위한 偽裝戰術에 不過하였으며 50年6月25日 奇襲的인 對南武力統一을 劃策했던 것이다.

休戰後 1954年4月26日 韓國問題의 平和的 解決을 위한 「제네바 政治會議」에서 UN의 어떠한 役割과 權能도 認定치 않는 北韓代表 南日이는 統一方案을 다음과 같이 提案했다.

- ① 모든 外國軍隊의 6個月以內 撤退
- ② 中立國 監視下의 南北韓總選舉
- ③ 南北代表로서 全朝鮮委員會構成
- ④ 南北間의 經濟·文化交流

北韓은 계속하여 거의 같은 內容의 平和統一攻勢를 取해 오다가 4.19革命이 突發했던 1960年의 光復節에 처음으로 다음과 같이 「聯邦制 統一方案」을 提起하였다.

- ① 外國의 干涉없이 民主主義的 基礎위에서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實施
- ② 南北總選舉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過渡的措置로서 南北聯邦制를 提案한다. 즉 南北에 現存하는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兩政府의 獨自的인 活動을 保障하는 同時에 兩政府代表로 構成되는 最高民族委員會를 組織하여 主로 經濟·文化發展을 統一的으로 調節한다.
- ③ 이러한 提案등을 同意하지 않는다면 南北實業界代表로 構成되 經濟委員會라도 組織할 것
- ④ 南北 文化使節의 來往과 科學·文化·藝術·體育 등 모든 分野에서의 交渉을 다시 한번 提案한다.
- ⑤ 南朝鮮에서의 美軍의 即時撤退를 要求하며 南北朝鮮軍隊를 各各 10萬 또는 그 以下로 縮小할 것
- ⑥ 以上の 諸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南北代表들이 平壤이나 서울 또는 板門店에서 會議할 것을 提議한다.

여기에서 聯邦制를 提唱한 目的은 여러가지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重要한 것은 韓半島의 南北分斷을 固定시켜 完全한 1對1의 地位를 確保하자는 것과 聯邦制를 구실삼아 一時的인 民族統一戰線을 形成하는 한편 美軍 및 「언커크」의 撤取名分을 찾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다음해 5.16軍事政權의 反共強硬路線을 그들의 執拗한 平和攻勢에 對한 障礙要因으로 받아들이고 1961年 7月 6日 「北韓・蘇聯間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을, 同年 7月 11日에는 「北韓・中共間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을 각각 締結하여 對內的으로는 所謂 4大軍事路線의 追求에 依한 軍事体制의 強化로 對應하면서 60年代 全般을 「南조선革命」을 통한 暴力統一論으로 一貫했다.

北韓共產政權은 初期에는 對蘇一辺倒의 追從을 通하여 自身の 政治的 正統性을 構築하려 했으나 50年代 後半부터 60年代 全般에 걸쳐 「主体思想」의 高揚과 「自主路線」을 標榜 展開함으로써 北韓社會의 閉鎖性과 好戰性은 深化一途를 치달렸다.

1970年代에 접어들면서부터 國際情勢는 對決에서 協商으로 指向하는 解氷氣運이 짙어 갔다. 「닉슨」大統領은 1970年 2月 18日의 外交特別敎書를 通하여 새로운 美國의 外交布石을 밝히면서 「아시아」에 있어서의 非美國化政策 즉 이른바 < Nixon doctrine >을 闡明했다.

그러나 南北統一을 共產革命의 完結과 同一視하는 金日成의 執念은 韓國에 對한 敵對感 및 戰爭挑發의 煽動으로 더욱 露骨化된 바 있다.

70年 11月 朝鮮勞動黨 第5次 全党大會에서 行한 演說에서 金日成은 「戰爭準備와 祖國統一의 革命的 大事變을 主動的으로 맞이 할 수 있는 物質的 準備를 促求」하였으며, 이 演說은 時期的

으로는 朴大統領의 8.15 宣言에 對한 反應이기도 하였다는 點에서 注目되는 것이다.

다시 北韓外相 허담은 1971年4月12日 北韓最高人民會議 第4期 5次會議에서 美國의 「닉슨 독트린」을 日本軍國主義를 앞장 세워 「아시아 아끼리 싸우게 하는 凶計」라고 非難하면서 韓國의 現政權이 打倒되고 「南조선에 人民의 政權이 서거나 愛國적인 새사람이 南조선政權에 올라 앉게 된다면 그와 平和統一問題를 協商할 것」이라고 前提하고 다음 8개項의 平和統一方案을 提示하였다.

- ① 美軍撤収
- ② 美軍撤収後 南北軍隊를 各各 10萬 또는 그 以下로 減縮
- ③ 韓美相互防衛條約과 韓日條約의 廢棄
- ④ 美軍撤収後 外部勢力의 干涉없이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實施하여 統一된 中央政府樹立
- ⑤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爲해 南北韓全地域에서의 政治活動의 完全 自由保障과 政治犯의 無條件 釋放
- ⑥ 過渡的措置로서 南北聯邦制의 實施
- ⑦ 南北間의 相互交流 便紙往來 및 人事交流의 實現
- ⑧ 以上の 問題를 協議하기 爲해 各政黨 社會團體들과 全體 人民의 性格을 가진 사람들으로써 南北政治協商會議 進行 위와 같이 새로운 內容은 하나도 없으며 過去에 모두 提案한 것들이다.

北韓은 平和統一을 의치면서도 實質적으로는 南朝鮮革命統一路線을 固守하고 있으며 挑發的인 行爲는 韓半島에 있어서의 緊張을 계속 激化시켜왔던 것이다.

그러나 70年代에 밀어 닥친 解氷무드와 多極化傾向은 環境的壓力으로서 北韓의 對内外政策에 作用하여 特히 1971年7月16日에 公表된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計劃은 北韓側에 상당한 衝擊을 주었으며, 從來의 強硬一辺倒이었던 對南·對美日姿勢를 柔和政策으로 바꾸는 氣味가 보이기 시작했다. 北韓은 全般的인 情勢를 緊張속의 對立으로 把握하면서도 對話의 側面을 전혀 否定할 수 없게 되었다. 8月6日 金日成은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를 歡迎하는 席上에서 「韓國의 民主共和黨을 包含한 모든 政黨과 公共機關 및 個人人士들과 아무때나 接觸할 用意가 있다」고 言明하였다. 이것은 지난 4月12日 허담演說과도 相馳되는 것으로서 東西國際關係의 變動에 따른 北韓側의 態度 變化를 反映한 것으로 解釈되며 協商對象의 幅을 無制限 開放하였다.

1971年 8月14日 大韓赤十字社 崔斗善總裁의 離散家族찾기會談의 提唱(1971. 8. 12)에 對하여 北韓赤十字社는 이를 받아들일 意思가 있음을 表明하였다. 이리하여 4半世紀의 「對話없는 對決」이 「對話있는 對決」로 南北斷絶의 障壁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72年 1月 10日 金日成은 日本読売新聞 特派員과의 會見에서 다음과 같이 그의 統一構想을 말하고 있다.

- ① 南北사이의 接觸과 連繫를 強化하고 祖国統一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南北政治協商을 進行할 것을 主張한다.
- ② 緊急事態를 除去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停戰協定을 南北사이의 平和的 協定으로 바꾸는 것이 必要하다.
- ③ 南韓으로부터의 美軍撤収
- ④ 南北双方의 軍縮
- ⑤ 어느 政黨, 어느 個人과도 아무때나 合意되는 任意의 場所에서 會談할 用意을 가지고 있다.

以上の 內容은 北韓의 従來의 主張을 새로운 情勢에 適應시켜 具体化한데 不過하다.

다시 72年 4月 27日 金日成은 日本의 朝日新聞 論說主幹(에바다)와의 會見에서

- ① 南韓의 制度를 그대로 認定하는 聯邦制
- ② 南北政治會談의 即時 開催
- ③ 南北政治會談의 開催로 美軍의 駐屯權利와 口實을 잃게 됨으로 駐韓美軍의 撤収는 政治會談의 前提條件이 될 수 없다.
- ④ 條件附 없는 UN 總會出席에 對한 受諾 用意
- ⑤ 日本政府가 韓國은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라고 하는 韓日條約 第3條를 無視하고 國家間의 關係를 樹立한다면 國交正常化가 可能하다.

는 內容의 見解를 表明하였는데 이는 美·日과의 接近을 意識하고서 한 發言이라고 할 수 있다.

中共의 UN加入(71.10.25)과 「닉슨」의 中共訪問(72.2.22)은 南北對話를 加速化시켰으며 72年7月4日 서울과 平壤에서 同時에 發表된 南北共同聲明은 南北關係 特히 統一問題解決에 새로운 契機를 마련해 주었다.

7.4 南北共同聲명의 內容은 南北關係의 改善과 나아가서 統一을 위한 方途 및 그 原則들이 남겨져 있다. 즉 그 內容은 모두 7個項目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 ① 祖國統一原則
  - ㉠ 自主的 解決
  - ㉡ 平和的으로 實現
  - ㉢ 民族的 大團結 圖謀
- ② 緊張狀態緩和 및 信賴雰圍氣 造成
- ③ 多方面的인 諸般交流 實施
- ④ 南北赤十字會談 積極 協調
- ⑤ 常設 直通電話 架設
- ⑥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
- ⑦ 合意事項을 實行할 것을 民族앞에 約束

南北對話의 첫 業績이라고 할 수 있는 歷史的인 7.4 南北共同聲明이 있은後 南北調節委員會를 가진바 있으나 實際的討議에 들어가는 별다른 進展이 없었으며 雙方間에는 相當한 見解差가 생겼다.

韓國은 非政治的인 쉬운 問題부터 漸進的으로 交流와 協力을 이루어 나가면서 相互信賴와 理解의 幅을 넓이는 段階的 發展論을 主張하는데 對하여, 北韓에서는 政治·軍事·社會·文化등의 同時的 合作論과 美軍撤収 軍縮問題등을 提議하여 一時的·同時的 解決의 主張으로 相馳하고 있어 南北調節委員會는 아무런 進陟이 없고 오히려 南北關係가 原點으로 돌아가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주고 있다.

73年 4月 5日 開催된 最高人民會議 5期 2次會議에서는 「祖國의 自主的 平和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外國의 內政干涉을 終止시킬때에 對하여」라는 議題를 討議하였으며, 金一은 所謂 「軍事的 對峙狀態 解消와 南北間의 緊張狀態 緩和등」에 關한 「5개項方案」을 報告한바 있었다. <sup>5)</sup> 그리고 4月 10日에는 그 內容을 담은 書翰을 世界 各國議會와 政府에 發送하였다.

73年 4月 16日 「시아누크」를 歡迎하는 平壤市民大會에서 行한 金日成의 演說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調節委員會擴大 (各政黨 社會團體代表參加)
- ② 調節委員會外 政治協商開催
- ③ 多方面的인 同時的 合作
- ④ 先行條件으로 美軍撤収를 비롯한 平和協定 締結

위 4가지 內容은 다시 6月 23日 「체코」代表團 歡迎 平壤市民大會에서 金日成이 提示한 平和統一 五大綱領으로 보다 深化되었다. 이것은 朴大統領의 6.23 平和外交宣言에 對한 直刻的인 北韓



의 反應이며 그 骨子は 다음과 같다.

- ① 軍事的 對峙狀態 解消와 緊張緩和
- ②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등 多方面的 合作과 交流
- ③ 南北各政黨 社會團體 各界代表로 構成되는 大民族會議 召集
- ④ 高麗聯邦共和國의 國號로써 聯邦制 實施
- ⑤ 單一國號로써 UN加入

위의 主張은 南北對話以前에 對南平和攻勢로 되풀이하던 「合作論」이나 「政治協商論」「聯邦制案」등을 다시 들고 나온 것에 不過하며, 6.23 宣言의 平和統一意志를 外面하고 分斷의 責任을 우리에게 轉嫁시 킬려는 底意를 露骨化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結局 그後의 一方的인 8.28 비방宣言으로 미루어 보아서 金日成의 統一構想은 實質的으로 7.4 共同聲明精神을 저버리고 南北統一對話의 進展을 拒否하는 虛構的 兇惡임이 分明하다.

北韓은 70年代 周邊情勢의 激動에 따른 環境適應過程에서 對話를 앞세운 平和攻勢의 有効性を 打算하는 一方, 對内外同調勞力의 多邊化를 꾀하면서 「南朝鮮革命」의 條件造成을 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b) 韓國의 統一努力

1947年 美·蘇共同委員會가 北韓의 拒否로 決裂되자 韓國問題는 美國의 提議로 UN總會에 上程되었으며 그 決定에 依하여 48年5月10日 UN監視下에 南韓만의 自由選舉가 實施되었다.

그리하여 制憲国会가 構成되고 48年8月15日 大韓民國의 獨立을 内外에 宣布하였다. U N 總會는 다시 12月12日 大韓民國을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로 認定하였다.

6.25 直前까지 北韓側에서 數次에 걸쳐 南北統一協商 提議를 해 왔으나 大韓民國은 唯一合法政府라는 데서 北韓을 不法集團으로 規定하고 相對하지 않았으며 北韓地域만 U N 監視下에 自由選舉를 實施하여 吸收 統合하는 方案을 主張했다.

6.25가 勃發하자 50年 10月10日字 「유엔」 總會의 決議에 依拠하여 「언커크」가 韓國에 駐在하게 되었고 韓國은 休戰을 決死反對하였으나 53年7月 日 休戰協定이 成立하였다.

그러나 休戰後에는 南北同時總選舉論을 내놓았다. 즉 54年4月 「제네바」 政治會議에서 卞榮泰外務長官은 다음과 같이 韓國統一方案을 提起했다.

- ① 統一獨立民主韓國을 樹立할 目的으로 從前의 「유엔」 決議에 依拠하여 「유엔」 監視下에 自由選舉를 實施한다.
- ② 現在까지 自由選舉가 不可能했던 北韓地域에서 그리고 南韓에서 大韓民國의 憲法의 節次에 依據하여 自由選舉를 實施한다.
- ③ 全韓國議會의 議員數는 全韓國의 人口에 正比例한다.
- ④ 全韓國議會는 選舉直後 서울에서 開催한다.
- ⑤ 下記 問題는 全韓國會의 開會後 制定되어야 한다.
  - 가) 大統領을 選出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의 問題
  - 나) 大韓民國 憲法 修正與否

다) 軍隊의 解散問題

⑥ 大韓民國의 現憲法은 全韓國議會가 修正하지 않는 限 계속 有效하다.

⑦ 中共軍은 選舉實施보다 1개월前에 撤收完了

⑧ 「유엔」軍은 統一政府가 樹立되고 이것이 「유엔」에서 確認되었을때 撤收를 開始한다.

이는 從前의 北韓地域만의 選舉가 아니고 南北韓 同時에 選舉하되 大韓民國의 憲法節次에 따라 「유엔」監視下에서 人口比例에 따라 國會議員 選舉를 한다는 것이다.

「제네바」政治會議가 決裂되었기 때문에 韓國問題는 다시 自動的으로 「유엔」에 되돌아갔다.

그後 大韓民國國會에서 採択한 統一方案을 보면 「유엔」監視下에 北韓地域만의 自由選舉 實施로 一貫되어 있으며 이는 6.25 以前의 主張으로 되돌아 간 것이다.

自由黨政府時代의 統一方案은 北進統一과 「유엔」監視下의 「北韓 单独 選舉」이었다.

4.19 革命以後 7.29 選舉에 依하여 民主黨政府가 樹立되었다. 民主黨政府는 「제네바」原則인 「유엔監視下의 南北韓 土着人口比例 總選舉 統一」을 統一原則으로 主張했다. 民主黨政府時代는 9개월間에 不過했으나 自由黨政府가 내세운 北進統一論에 對한 反撥로 多樣한 統一方案이 各政黨 社會團體로 부터 쏟아져 나왔다. 따라서 即興적이고 感傷적인 內容의 것이 많았다.

1961年5月16日 軍事革命委員會는 政權을 引受한 다음 6개條項의 革命公約을 發表하였다. 統一에 關한 條項은 第1項과 第5項이었다. 즉 第1項 「反共을 國是의 第1義로 삼고 지금까지 形式的이고 口號에만 그친 反共態勢를 再整備 強化한다.」 第5項 「民族的 宿願인 國土統一을 위하여 共產主義와 對決할 수 있는 實力培養에 全力을 傾注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 公約으로 보아 軍事政權의 統一에 關한 姿勢는 먼저 지금까지의 統一方案에 對한 分散된 主張을 統一하여 反共態勢를 再整備 強化하고 「先建設, 後統一」의 方向이었다.

이러한 基本的인 方針에 立脚하여 當時 外務長官이었던 金弘一 長官은 「우리는 武力에 依한 國土統一을 願하지 않으며 平和的 方法으로 統一을 追求하며 UN監視下의 南北總選舉實施를 強調한다」고 처음으로 革命政府의 統一方案을 發表했다. 이어서 그 해 6月25日 朴正熙 最高會議 議長은 「9월에 開催되는 UN 16次 總會에서의 韓國問題討議와 解決에 對한 從來의 政府方針에 何等의 變化가 없다」고 聲明하므로서 金長官의 聲明을 再確認 했다.

民政移讓에 따른 第三共和國 탄생後에 있어서도 一貫하여 UN監視下에 土着人口比例로 南北自由選舉를 實施해야 한다는 것을 主張했으며 統一을 爲하여는 祖國近代化를 서두르고 自立經濟建設에 拍車를 加하여 勝共力量을 培養하며 統一問題의 本格的인 論議는 1970年代 後半期가 될 것이라고 展望하였다.

南北間의 人道的 接觸과 交流 등 새로운 關係의 摸索을 위한 主張도 일기 始作하였으나 70年代에 와서 朴大統領의 8.15 宣言을 계기로 統一問題에 있어서 一大轉機가 되었다.

朴大統領이 光復 25週年 記念式에서 한 8.15 宣言은 韓國의 統一路線의 劃期的 轉換의 可能性을 淸명하였다는 點에서 重大한 意味를 갖는다고 하겠으며 國際情勢의 變化에 能動的으로 対応하려는 積極的인 姿勢의 表現으로서 8.15 宣言은 國內外的 注目を 크게 集中시켰다.

8.15 宣言의 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北韓은 武裝共匪南派 등의 모든 戰爭挑發行爲를 即刻 中止하고 소위 武力에 依한 赤化統一이나 暴力에 依한 大韓民國의 전복을 企圖해 온 從前의 態度를 完全히 포기하겠다는 點을 明白하게 內外에 宣言하고 이를 行動으로 實踐해야 한다.
- ② 이러한 우리의 要求를 北韓이 受諾, 實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確實히 認定할 수 있고 또한 UN에 依해 明白하게 確認될 경우에는 나는 人道的 見地와 統一基盤造成에 기여할 수 있으며 南北韓에 가로 놓인 人爲的 障壁을 段階的으로 除去해 나갈 수 있는 劃期的인 方案을 提示할 用意가 있음을 밝힌다.
- ③ 北韓이 韓國의 民主統一獨立과 平和를 위한 UN의 努力을 認定하고 UN의 權威와 權能을 受諾한다면 UN에서의 韓國問題 討議에 北韓이 參席하는 것도 굳이 反對하지 않을 것이다.

④ 北韓에 대해 더 이상 無辜한 北韓同胞의 民生을 희생시키면서 戰爭準備에 狂奔하는 罪惡을 犯하지 말고 보다 善意의 競争 말하자면 民主主義와 共產獨裁의 그 어느 體制가 國民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條件을 가진 社會인가를 立證하는 開發과 建設의 創造的 競争에 나설 用意가 없는가를 묻고 싶다.

처음으로 善意의 競争을 提示한 平和統一의 基盤造成을 위한

8.15 構想은 北韓으로 하여금 暴力赤化統一論을 포기하고 「緊張緩和를 통한 平和的 統一」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劃期的인 뜻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朴大統領의 平和統一構想은 北韓의 全面拒否로 나타났으나 8.15 宣言을 계기로 國內 各界에서는 統一論議가 活潑히 展開되었다.

1971年은 重要な 情勢發展이 있었다. 4월에 北京當局은 當時 日本에서 試合을 벌이고 있던 美國 卓球「팀」을 中共으로 招請하여 世界를 깜짝 놀라게 했으며, 뒤이어 7月15日의 「닉슨」中共 訪問計劃發表는 一大衝擊的인 事件이 아닐 수 없었다.

美國의 亞細亞에 있어서의 非美國化政策의 促進과 美·中共間의 和解란 새로운 事態에 조심스럽게 適應하는 첫 措置로서 8月12日 大韓赤十字社 崔斗善 總裁는 「離散家族찾기問題」를 討議하기 爲한 會談을 北韓赤十字社에 提議했다.

이에 對하여 北韓은 14日 受諾한다는 것을 通報해 왔고 따라서 4半世紀만에 南北對話가 트였다는 것은 時機를 얻은 外交的 成果라고 할 수 있다.

71年 8月 15日 光復節 26日 慶祝辭에서 朴大統領은 韓國問題는 主体的 努力과 自主的 決斷에 있다는 것을 強調하고 北韓側이 武力을 포기하고 진지한 姿勢로 나온다면 平和統一을 위한 對話의 広場을 마련할 것이라는 積極的인 方途를 提示했다.

이것은 韓半島의 將來問題가 大國主義의 祭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짐한 것이라고 하겠다.

71年 8月 31日 金容植 外務長官은 記者會見에서 北韓의 武力挑發의 完全포기를 前提로 하고

- ① 赤十字社의 人道的 問題
- ② 物資交流, 人的往來, 文化交流 등 非政治的 問題解決
- ③ 政治的 問題 解決이라는 統一接近 三段階論을 提示하기도 했다. 이러한 漸進的 段階的 接觸論은 南北會談에 있어서 우리側의 基本的인 立場으로 一貫되고 있다.

72年 7月 4日 10時에 發表된 南北共同聲明은 南北接觸에 있어서 새로운 段階로 넘어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南北對話의 첫 成果라고 할 수 있다.

一觸即發의 아슬아슬하기까지 했던 南北關係의 梗塞狀況의 打開努力끝에 斷絶의 障壁을 넘어 政治的 次元에서 直接 對話通路가 設定된 것이다.

7.4 聲明은 南北間의 政治的 對話의 첫 信號를 일깨워 주었다. 또 그것은 緊張緩和의 다짐에 그치지 않고 祖國統一의 三原則으로서 自主, 平和, 民族的 大團結을 천명한 것이다.

「雙方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結果로 생긴 南北사이의 誤解와 不信을 풀고 緊張의 高潮를 緩和시키며 나아가서 祖國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對話없는 對決」에서 「對話있는 對決」로 移行한 것이다.

그것은 이 民族의 良識과 靛智위에 自治能力의 成熟을 證明하였으며 主體的이고도 能動的인 環境適應能力을 誇示하였다.

南北共同聲明을 낸 北韓側의 真意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커크」解體와 美軍撤収를 強要함으로써 韓國의 國際的地位를 弱화시키며 國家安保의 基盤을 뒤 흔들어 놓는다.

둘째, UN의 各 專門機構를 包含한 國際組織에 과고 들어가서 1對1 關係의 事實承認鬭爭을 通하여 「韓半島의 唯一한 合法政府」의 國際的 承認을 無効化하는 한편 그들의 國際的 地位를 改替함과 同時에 國民들의 그들 自身에 對한 公的 Image와 信任 및 支持를 向上시키는 것이다.

세째로는 思想·理念·制度를 超越하는 民族的 大團結이라는 口實으로 南韓에 革命政党的 活動을 合法化 乃至 支援하고 또 한편 政党社會團體의 交流와 連席會議를 通하여 韓國政府를 南韓의 國民과 政党·社會團體로부터 疏外·孤立시키려는 것이다. 6)

이러한 手段方法 및 過程으로 南韓의 革命情勢造成과 赤化統一의 不純한 意圖를 堅持하는 限 南北調節委員會나 赤十字會談의 進歩이 挫折되고 말 것은 當然한 일이다.

한편 韓國側의 動機와 意圖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國際的 狀況의 變化에 따른 새로운 適應態勢의 要請이다. 世界가 美·蘇 兩極体制로부터 五大勢力圈의 相互牽制와 均衡에 依한 多極体制로 바뀌어 지자 그리고 東西冷戰이 緩和되자 過去 韓國의 安保를 지탱하여 준 冷戰体制의 基盤이 뒤흔들리게 되었고 새로운 國際環境에서 生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適應姿勢를 갖추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오늘에 와서 自由友邦들은 理念戰爭 보다는 貿易과 文化的·社会的 文流에 더 関心を 갖고 있으나 그 틈바구니에서 從前의 反共一辺倒政策으로는 國際的 支持와 協助를 維持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脆弱해진 韓國의 安保体制下에서 北韓의 戰爭挑発을 極力 回避 乃至 防止할 必要가 있었다.

특히 好戰的인 金日成集團의 強硬冒險政策을 보다 穩健한 平和共存路線으로 轉換할 수 있게끔 條件을 造成하는데 있어 새로운 外交的 「이니시아티브」가 要請되었던 것이다.

세째, 急變하는 國際情勢下에서 그리고 北韓의 끊임없는 挑戰이 계속되는 속에서 国力動員과 体制強化를 하자니 보다 広汎하고 熱成的인 國民의 支持를 얻을 수 있는 政治的 象徴이 必要하여 진 것이다. 7)

어떻든 7.4 声明은 平和統一을 達成하기 위한 国内政治秩序의 再整備 즉 南北和解의 姿勢를 보여 준 것으로써 7.4 声明에 合意한 南北間에는 그 動機에 있어 적지않은 差異가 있는 것 같다.

7.4 声明의 合意에 依한 南北調節委員會의 發足으로 南北間의 對

話「채널」이 制度化되었다고 한다면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위한 制度化의 努力은 드디어 73. 6. 23 宣言으로 나타났다.

이는 分斷國에 對한 現狀固定化的 國際趨勢를 감안하면서 韓半島의 南北分斷狀態를 認定하는 統一外交의 現實化決斷이라고 할 수 있다. 從來의 極限的인 北韓否定的 名分外交를 탈피하고 國際的 緊張緩和潮流에 能動的으로 기여하기 爲한 우리外交의 現實化라고 할 수 있다. 70年의 8.15 宣言에서 73年의 6.23 宣言에 이르는 朴大統領의 自主的 平和統一意志는 國內外的으로 좋은 「이미지」를 浮上시키고 있다. 특히 6.23 宣言은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기 爲한 斷案이며 強力한 「리더십」에 依한 冷戰体制의 超克이라는 點에서 重大한 意義를 갖는다.

## 第4章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

朴正熙大統領은 지난 6月 23日 中外에 천명한 平和統一外交政策에 關한 特別聲明에서 7個項의 政策的原則을 밝힘으로써 民族統一史에 있어 主体的 現實的 統韓努力에의 大轉換點을 마련했다.

「6.23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은 分斷現狀維持속에서 對話와 緊張緩和를 追求, 70年 「8.15 宣言」에 表明되었던 「善意的 體制競爭」提議를 具體化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a) 背景

美·蘇間의 對決秩序는 62年의 「큐바」危機를 거쳐 점차 平和共存 體制로 移行하고 있었으며, 드디어 1966年 10月 7日 「존슨」大統領이 歐洲政策의 基調를 바꾸어 「獨逸問題의 解決은 歐洲和解를 통해서 可能하다」고 하자 歐洲에서는 和解무드가 上昇하였고 「브란트」西獨政府의 東方政策의 기틀을 만들어 주었다.

歐洲에서는 이 「존슨」聲明을 契機로 冷戰解消에로의 方向이 급격히 促進되었다. 이러한 東西和解무드가 解氷潮流를 타고 「아시아」와 韓半島에도 밀어 닥쳤다.

① 韓半島周邊情勢의 變化와 南北關係에 對한 列強國들의 態度變化  
韓國이 38線으로 分斷되어 南北韓이 各已 美·蘇의 勢力圈에 屬하게 된 지 4半世紀동안에 韓半島周邊情勢에도 大小의 變動이 뒤를 이었다.

6.25 南侵에 이은 中共의 介入과 60年代 初期以來의 蘇·中 紛爭으로 北韓에 對한 外勢關係가 單一 對蘇依存體制로부터 蘇·中勢力의 二重投影狀態로 變貌하고 있으며 그와 反面에 日本의 經濟大國化와 韓日關係의 正常化 및 「닉슨」, 「독크트린」의 展開등으로 韓國에 對한 日本의 利害關係가 增進됨으로써 韓美一辺倒였던 韓國의 對外關係가 漸次로 韓·美·日의 多邊的 國際關係를 中心으로 하는 體制로 移行된 것이 60年代末까지의 趨勢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亞細亞에는 70年代에 들어 오면서 緊張緩和의 물결이 밀어 닦쳤다. 國際權力政治에 있어서의 美國의 힘의 限界와 優位喪失은 美·中과 日·中으로 하여금 相互接近케 했다.

이 美·中·日·中의 和解는 70年代 國際情勢를 크게 뒤흔들어 주었다. 더우기 71年 가을 中共의 UN 加入은 國際權力政治構造를 兩極에서 三極으로 移行시키는데 決定的인 契機가 되었다.

이와같은 世界情勢變化의 挑戰은 世界의 거의 모든나라에 對하여 큰 衝擊을 주었다. 그중에서도 格別히 深刻한 衝擊을 받은 地域은 다른아닌 韓半島이다.

6.25 動亂後 지금까지 南北韓은 다 같이 美·中共間의 對決이라는 大前提 밑에서, 各各 國際權力政治上 座標를 設定하고 維持해 왔었다.

그런데 이 大前提가 1971年 봄의 美·中共 「핑퐁」 外交를 契機로하여 갑자기 무너져 가고 있었다.

美國은 中共과 和解(1972年 2月) 함으로써 國內問題의 解決에

專念하면서 對外介入을 縮小整理하여 蘇聯과 日本을 同時에 견제하고, 中共은 反對로 美國을 끌어들이어 蘇聯의 軍事的 壓力과 威脅에서 벗어나고 同時에 日本을 견제하고 美國의 軍事的 撤收를 促進하려는 것이다.

또한 蘇聯은 美國과 日本에 接近함으로써 中共을 견제시켜 日本은 日本대로 獨自的인 外交姿勢를 보임으로써 「아시아」에서의 多邊的인 勢力均衡을 이룩하려는 것이다. 이와같은 4強에 依한 均衡體制는 「유럽」에서처럼 必然的으로 現狀의 認定을 前提로 한 것이다.

어떻든 美·中 中·日和解는 相互關係의 調整과 正常化를 通하여 나아가서는 平和共存의 기반을 成熟케 할 것이다. 美·蘇·中·日 四強이 平和共存을 하기위 하여는 韓半島의 不安을 克服하고 이 地域에 確固한 平和의 터전을 닦아 놓는 것이 必須 不可欠한 先行 條件이다. 이같은 強大國間의 現狀維持式 共存政策은 緊張緩和을 위한 分斷固定化를 意味할 따름이다. 結局 脫冷戰 脫「이데오로기」의 強大國論理는 韓半島에서 「南北關係 現實化」를 追求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韓國의 周邊 強大國中 어느 하나도 우리의 統一을 위하여 自國의 利益을 犧牲시킬 만큼 積極的인 나라는 없다.

## ② UN의 體質變化

韓國이 UN과 맺고 있는 깊은 유대는 새삼 強調할 必要가 없을 것이다.

UN에서 韓國問題가 처음 提起된 것은 1947年 9月이며 그 後 UN은 大韓民國 政府樹立의 產婆役을 담당하였고 우리가 韓半島에서 唯一合法政府임을 세계에 主張할 수 있는 것도 UN의 決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UN은 6.25 動亂 당시 UN의 權能에 依한 集團安全保障行爲를 行使하여 北韓의 南侵을 격퇴시켰을뿐만 아니라 그後에도 繼續 韓國의 安全과 統一에 對한 關心을 持續해 왔다. 6.25 動亂을 계기로 UN과 韓國은 더욱 깊이 얽히게 되었으며 UN은 現在까지도 韓國에 UN決議에 依하여 UN軍과 「언커크」를 駐在시키고 있다.

그러나 1950年 6.25 戰亂 當時의 UN과 오늘의 UN은 너무나 그 差異가 많다. 1950年代의 UN은 美國의 勢力에 依하여 조종될 수 있었으나 오늘의 UN은 그렇지 않다. 6.25 動亂 當時 美國은 UN에서 圧倒的 多數를 確保하고 있었으며 UN에서의 韓國問題에 관한 決議는 美國의 專制的인 影響속에서 이루어 졌다.

1959年 第14次 總會까지 韓國에서 UN의 役割이 繼續 必要하다는 內容의 大同小異한 統韓決議案이 圧倒的인 多數票로 可決되었으며 UN에서 韓國問題가 討議되는 자리에는 의례 大韓民國의 代表만이 單獨으로 招請되었다.

또한 韓國問題의 上程은 UN의 年例行事가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하면 1950年代의 UN은 美國의 勢力에 依하여 左右되고 있었다.

즉 美國의 意思에 따라 UN의 向方이 決定되고 UN 會員國의 利害關係가 料理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韓國도 UN 加入問題를 除外한 餘他的 對UN 外交는 何等의 問題꺼리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1960 年代에 들어서면서부터 韓國의 對UN 政策은 徐徐히 試練의 時期를 맞이하기 始作하였다. UN 内の 會員國 勢力版圖의 變化에 따라 UN 에서의 韓國問題는 漸次 現實的 挑戰에 直面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같은 韓國의 對UN 政策이 現實的 試練에 直面하게 되었던 背景으로는 첫째, 1950 年 中葉부터 始作된 政治協商에 依한 新入會員國의 進出과 둘째, 1960 年代에 加速화된 「아프리카」 新生獨立國의 大挙進出로 因하여 UN 内の 勢力構造에 根本的인 變革이 일어났다는 點을 指摘할 수 있다.

60 年 初에는 中立勢力이 크게 膨脹한데 比하여 美國의 影響力은 相對的으로 弱化되기 始作하였다. 그때까지의 韓國問題는

- ㉠ 南北韓 同時招請案
- ㉡ UNC URK 解体案
- ㉢ 外軍撤収案

㉣ 統韓決議案으로 要約되며 이에 對한 贊反間의 票差가 줄어들고 對立이 尖銳化하자 UN 會員國들 사이에는 韓國問題를 年例적으로 上程하느냐에 對해 懷疑가 일어나기 始作하였고 一部 中立會員國들은 韓國代表만의 招請에 消極的인 態度를 보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韓國問題處理는 1960 年 第 15 次 UN 總會를 契機로 그 첫번째의 轉機를 맞았다. 1960 年 「인도네시아」 代表는 南北韓 同時 招請案을 提起한데 對하여 美國代表 「스티븐슨」은 條件附

同時招請案으로 맞섰다. 「스티븐슨」案은北韓의 UN進出을 繼續封鎖하는데 有効하였으나 UN안에서는 韓國問題의 年例的인 上程에 싫증을 내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北韓의 UN招請에 關한 票決의 樣相에 점점 우리에게 不利했다.

韓國의 對UN 政策變化의 다른 또하나의 轉機는 1968年 第23次 UN總會에서 나타났다.

韓國은 事態의 推移가 尋常치 않음을 깨닫고 第23次 總會부터는 從來의 韓國問題 自動上程方式을 止揚하고 裁量上程方式으로 轉換하기에 이르렀다. 즉 韓國問題가 UN에서 우리에게 有利하게 展開될 展望이 보이지 않는 限, 또北韓의 同調努力에 依해 韓國問題上程이 強要 當하지 않는 限, 韓國問題의 UN上程을 保留한다는 政策이다. 이 方式은 共產側의 要請으로 每年 韓國問題가 提起되었기 때문에 事實上 別 效果를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韓國問題가 討議된 70년까지 UN總會는 韓國代表만을 招請해 UNCURK의 統韓決議案을 採択하고 共產側이 提出하는 UNCURK 解体案 및 UN軍 撤収案을 繼續 否決해 왔다.

세번째로 韓國의 對UN 政策에 轉機를 가져온 것은 1971年 第26次 UN總會에서 韓國問題討議延期案이 提起되었다.

中共의 UN加入이 實現된 71年總會는 韓國問題上程이 더욱 不利하게 보였으며 當時 進行되고 있는 南北赤十字會談에 障礙要因이 된 可能性이 많았기 때문에 이를 一年間 保留하려는 것으로서 北韓同調努力의 攻勢를 미리 封鎖하는데 成功하였다.



이 방식은 1972年 第27次 総会에서도 같은 理由로 그대로 貫徹되어서 今年 가을에 있을 第28次 UN總会까지 韓国問題의 討議는 다시 延期되었다. 그러나 東·西獨의 UN同時加入과 中共의 影響力의 擴大 및 非同盟國家들의 動向은 더욱 票의 浮動現象을 激化시키고 몹시 不安定하며 北韓의 UN에의 熾烈한 進出試圖인 UN代表部 設置準備完了와 더불어 憂慮되는 바 없지 않다.

더우기 東·西獨이 UN에 加入할 73年 第28次 UN總会和 分斷國 普遍性原則에 對備하기 爲하여서 우리의 UN外交에도 큰 變動이 不可避하게 된 것이다.

UN總会에서의 韓国問題 票決趨勢

案 件 年度 票決	統韓決議案		UNCURK 解 体 案		UN軍撤収案		条件附招請案		無条件招請案		会 員 數
	贊	反	贊	反	贊	反	贊	反	贊	反	
1961	55	11					63	18			103
1962	63	11					65	9	29	56	110
1963	65	11					64	10	25	54	111
1964	-	-					-	-	-	-	-
1965	61	13					50	20	28	39	117
1966	67	19	21	61	21	61	63	24	34	53	122
1967	68	23	24	60	24	59	58	28	37	50	122
1968	72	23	27	68	25	67	67	28	40	55	126
1969	71	29	30	65	29	61	65	31	40	55	126
1970	69	30	32	64	32	60	63	31	40	54	127

1. 64年度 総会는 流会
2. 統韓決議案은 総会의 票決
3. 그밖의것은 政治委員會의 票決.

### ③ 北韓의 外交攻勢

1968年 1.21事態와 1968年 1.23 「푸에블로」号 事件에 이어 1969年 4月 15日 EC-121機 墜추事件과 같은 北韓의 戰爭挑發行爲를 보고 「닉슨」大統領은 4月 18日 記者會見을 통하여 「北韓은 그 行爲面에서 가장 予測할 수 없는 政權의 하나이며 共產陣營内에서도 蘇聯이나 中共의 손이 가장 먼 미치는 存在의 하나로 알고 있다」는 見解를 피력했던 것이다. 北韓의 이른바 自主路線의 追求가 北韓社会의 好戰性(表1)과 閉鎖化에 따른 國際的 疎外를 免치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바다.

그러나 70年代에 들어 숨가쁘게 일어닥친 蘇聯의 現實外交와 中共의 갑작스런 對美接近 和解趨勢와 蘇·日 兩國의 關係改營氣運 및 東歐圈의 對西方 接近등 急轉하는 國際情勢의 多元化傾向은 中·蘇紛糾以後 北韓의 國際的 位置의 再調整을 不可避하게 하는 環境的 壓力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새로운 國際秩序속에서 無活動性과 硬直性을 固執함은 結局 孤立狀態를 自招할 道理밖에 없으며, 國際的 地位와 認定을 獲得하기 위한 競争에서 韓國에 有利할 뿐이다. 分明 北韓의 當局者들은 이러한 事實을 認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國際舞台와 韓半島의 急激한 狀況變化에 따라 政策調整을 함으로써 伸縮性과 迅速性을 보였다」<sup>8)</sup>

즉 北韓은 比較的 빠른 時日内에 強硬一辺倒의 對美·對日姿勢를 柔化政策으로 바꾸었을 뿐 아니라 對外關係의 幅을 넓혀 國際的 同調勢力을 多邊化하는 一方, 敵對勢力의 中性化에 注力하고 있다.

# 表 1 .

## 北韓의 挑發事件 ( 1965-71 )

사 건 별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의 주요도발 사건	42	37	445	486	87	66	37
대한민국내의 주요도발사건	17	13	121	143	24	47	10
비무장지대 총격사건	23	19	122	236	55	42	31
대한민국내의 교전사건	6	11	96	120	22	26	6
계	88	80	784	985	188	181	84
피 해 상 황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적 사 살	4	18	228	321	55	46	34
생 포	51	21	57	13	6	3	2
U N 군 전 사	21	35	131	162	15	19	22
U N 군 부 상	6	29	294	294	44	22	47
한국경찰 및 민간인사상	19	4	22	35	19	7	8
한국경찰 및 기타민간인 부상	13	5	53	16	17	17	6
계	114	112	785	841	156	104	119

※ 国土統一, 1973, P. 69.

北韓은 國際政治秩序의 構造變化를 교묘하게 利用하면서 國際的 信賴를 얻기에 안간힘을 쓰기 始作하였다.

最近에 우리눈에 두드러지게 된 이른바 巡訪 乃至 招請外交의 展開, 國際機構에의 加入努力 등이 그것이다. 특히 그 背後勢力의 主要一翼인 中共의 UN加入과 「유니버살리티」趨勢 내지는 美·日의 對共協商政策 등은 北韓이 이를 利用하기에 따라서는 韓國의 孤立化 乃至 對韓優位를 推進할 수 있는 好條件으로 看做되는 것이다.<sup>9)</sup>

北韓의 訪問外交는 이미 1971年부터 本格化하여 그해에 52個 國을, 72年에는 64個國을 巡訪하며 外交攻勢를 侈왔다.

다시 올해에 들어 北韓은 不過 4個月동안에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中南美, 中東 등지의 62個國을 17個에 達하는 海外使節團이 巡訪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들 對象國을 別로 分析하면 中立地域 47個國(「아프리카 24, 아시아 6」中東 6, 南美 4, 「유럽 7」), 共產陣營 10個國과 自由陣營 5個國으로 分類된다. 또한 이들은 訪問外交에 結들여 招請外交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올해에 들어 27個國에서 41個 代表團을 招請, 外交 및 通商의 改善을 도모하고 있다. (表 2)

이는 北韓이 얼마나 國際的인 對南劣勢回復에 腐心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地域에 對한 接近方法 또한 多樣하여 「아프리카」의 後進 地域에 對하여는 經濟, 技術援助를 미끼로; 中東諸國에 對해서는

# 表 2. 北韓의 對外關係增加現況

(a) 外交關係樹立

연 도	국 가 명
1948	소련, 몽고, 폴란드,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
1949	알바니아, 중공, 동독 .
1950	월맹 .
1958	알제리아, 기니아
1960	큐바, 말리 .
1963	예멘, 예집트 .
1964	인도네시아, 모리타니아, 몽고 ( 부랴자빌 )
1965	탄자니아
1966	시리아
1967	부룬디, 노말리아
1968	이락, 사우드에멘
1969	잠비아, 수단
197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세일론(가) ( 스리랑카 ), 기니아(가)
1971	말디베스, 옹고, 시에라레오네, 말타 .
1972	카메룬(가), 르완다, 칠레, 세네갈, 어퍼볼타. 파키스탄(가) 자이레(가), 말라가시공화국(가) .

(b) 領事關係樹立國

연 도	국 가 명
1961	인도(타), 버마(타)
1969	네팔(타), 싱가포르(타)
1971	마우리티우스(타)

(c) 貿易代表部設置國

연 도	국 가 명
1967	프랑스(타)
1968	레바논(타), 쿠웨이트
1969	스위스, 핀란드, 오스트리아(타), 영국(타), 리비아

(d) 文化公報事務室設置國

연 도	국 가 명
1970	스웨덴(타)
1972	노웨이(타)

- <범예> (가) = 外交關係중단국  
 (나) = 大韓民國과도 外交關係를 맺고있는 국가 (外交使節이 常駐하지 않음)  
 (다) = 大韓民國과도 外交關係를 맺고있는 國家 (外交使節이 常駐하고있음)  
 (타) = 大韓民國과도 領事關係를 맺고있는 國家  
 (타) = 大韓民國의 貿易代表部가 設置된 國家.

「이스라엘」과의 敵對關係를 十分活用 政治的 紐帶強化에 나서는 一方, 「아시아」 및 南美浸透 또한 繼續 加速化되고 있다. 對西方訪問戰略은 주로 文化, 体育 通商使節團등을 통한 諸般交流의 擴大와 平和的 「이미지」扶植을 도모하며 이를 爲해 國製的 和解氣運에 便乘하고 있다.

이들의 「유럽」浸透의 拠点으로 北歐의 共産黨이 利用되고 있음은 또한 特徵的이다.

北韓의 이러한 積極外交의 結果를 綜合해 보면 73年7月1日現在 南北韓의 外交關係樹立國家는 各己 85 對 55로써 우리側이 훨씬 優勢하나, 이 中 「스웨덴」,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 21 個國은 南北韓과 모두 外交關係를 갖고 있으며 美國을 비롯한 64 個國은 韓國과만, 蘇聯 等 34 個國은 北韓과만 外交關係를 맺고 있다.

南北韓 兩쪽과 모두 外交關係를 갖고 있지는 않으나 南北韓公館이 對峙하고 있는 印度, 「버마」, 「인도네시아」 등까지 치면 南北對峙地域은 33 個國에 이르고 있다. (表3)

이 中 南北韓 兩쪽과 外交關係를 갖고 있는 나라는 모두 韓國만의 既修交國에 昨年과 今年사이에 北韓이 과고들어 온 경우 뿐이다. 특히 衝擊적이었던 것은 지난 4月 以來의 北歐諸國의 北韓承認과 北韓의 親西方中立國인 「이란」과의 修交合意나 IPU, WHO 加入 等은 北韓의 外交的 蚕食이 이미 危險水位를 넘고 있음을 示唆하는 것이다. <sup>10)</sup>

国	名	韓 国	北 韓
亞 洲	말 레 이 지 아	대 사 관	外 交 關 係 樹 立
	말 다 이 브	겸 임 대 사 관	外 交 關 係 常 存
	인 도 네 시 아	총 영 사 관	대 사 관
	싱 가 프 르	"	총 영 사 관
	인 度	"	"
	파 키 스 탄	"	대 사 관
	버 마 팔	"	총 영 사 관
美 洲	칠 레	대 사 관	대 사 관
	아 르헨티나	"	外 交 關 係 樹 立
歐 洲	스 웨 덴	대 사 관	外 交 關 係 樹 立
	노 르 웨 이	"	"
	덴 마 크	"	"
	아 이 슬 랜 드	겸 임 대 사 관	"
	물 타	"	겸 임 대 사 관
	오 스트 리 아	대 사 관	통 상 대 표 부
	프 랑 스	"	민 간 통 상 사 무 소
핀 란 드	통 상 대 표 부	대 사 관	



国名		韓國	北韓
中東	이란	대사관	外交關係樹立
	아랍共和國	총영사관	대사관
	레바논	통상대표부	통상대표부
	쿠웨이트	"	"
阿 洲	카메룬	대사관	대사관
	자이레	"	"
	우간다	"	"
	세네갈	"	"
	다호메	겸임대사관	"
	말로가시	"	外交關係樹立
	루안다	대사관	겸임대사관
	시에라리온	겸임대사관	"
	토고	대사관	外交關係樹立
	오트볼타	"	"
모리셔스	겸임대사관	"	

이렇게 볼때 緊張緩和와 國益追求의 國際政治潮流와 南北對話에 便乘한 北韓의 外交攻勢는 자못 上昇勢에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같은 國際社會의 狀況變化와 北韓의 外交攻勢에 果敢히 対処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6.23宣言에 依한 韓國의 外交政

策轉換은 不可避하며 또한 必須的인 現實適應으로서 統一與件의 能動的 造成인 것이다.

## b). 內容 分析

7 個項으로 된 宣言을 逐條的으로 풀이 해 보면 다음과 같다.

第一項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우리民族의 至上 課業이다. 우리는 이를 成就하기 爲한 努力을 傾注한다」 與件이 어떻게 變貌하는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民族至上의 念願이요 課業이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努力은 統一을 達成하는데 歸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第二項 「韓半島의 平和는 반드시 維持되어야 하며 南北韓은 서로 內政에 干涉하지 않으며 侵略을 하지 않아야 한다」

冷戰遺制를 清算하고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기 위하여는 먼저 南北 相互間의 內政 不干涉과 不可侵이 必要한 前提條件이 된다.

北韓側은 이제까지도 法律改廢와 共産黨의 合法化 乃至는 政治犯의 釈放 등을 要求하여 內政干涉을 試圖해 왔다.

또한 그들이 提議하고 있는 聯邦制案도 따지고 보면 內政干涉의 合理化를 노리는 底意를 內包한 것이다. 最近에도 8.28 비방宣言이나 調節委 再開要求에 對한 北韓側의 再開先行條件의 內容을 보면 틀림없이 內政干涉을 꾀하고 있다.

第三項 「우리는 南北共同聲明의 精神에 立脚한 南北對話의 成果를 爲하여 誠實과 忍耐로서 繼續 努力한다」

모처럼 어렵게 갖게 된 南北對話가 中斷되고 膠着狀態에 빠진

理由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① 統一問題에 있어 서울側은 段階的 接近을 말 했으나 平壤側은 性急한 「一括解決」을 主張하고 있었다.

② 具體的인 「이슈」提起에서 平壤側은 平和協定, 軍縮論과 南北 政治協商을 들고 나왔으며 이에 대해 우리側은 처음에 信賴의 定立이 先行되어야 함을 說得시키려 했다가 6月 12日에 이르러서는 南北社会 完全開放論을 提示하였다.

③ 이와 關聯된 南北調節委員會의 機能發揮을 위해 우리側은 우선 經濟分科委와 社会文化分科委부터 發足시키자고 했는데 北韓側은 軍事, 政治, 經濟, 文化, 外交 등 5個 分科委를 一時에 發足시키자고 했다.

④ 赤十字會談은 議題 第一項 즉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를 不知何才月格으로 membr다시되 했다.

그것은 北韓側이 家族찾기와는 동떨어진 「法律的, 社会的 障碍의 除去」를 主張하면서 一種의 内政干涉을 試圖했기 때문이다.<sup>11)</sup>

한편 우리가 主導하여 南北對話를 推進하고 있는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韓半島에서 다시는 6.25와 같은 悲慘한 戰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共產主義者들은 體質的으로 好戰的인데다가 이른바 赤化統一이라는 戰略目標을 내걸고 平和攻勢와 挑發行爲로 韓半島에 緊張을 高潮시켜 왔다.

따라서 北韓을 世界가 注目하는 對話의 廣場으로 끌어내어 그들이 다시는 영동한 불장난을 저지르지 못 하도록 막으려는 것이다.

둘째는, 南北이 平和的인 善意의 競爭을 벌리자는 것이다. 南과 北은 社会体制가 다르며 思想이 다르고 目的하는 바도 서로 달라서 쉽게 하나로 뭉칠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반드시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같은 國家요, 같은 民族이다.

그러므로 南과 北은 우선 平和的인 建設이나 開發을 競爭하고, 여러 方面에서 交流와 協力을 이루어 이제까지 쌓여던 相互不信과 對立關係를 清算해야만 하는 것이다.

셋째는, 이와 같은 南北關係를 段階的으로 改善해서 서로 信賴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平和統一」이라는 窮極의 目標을 成就하는 것이다.

앞컨대 對話를 통해서 서로 理解의 幅을 넓히고 理解로서 信賴의 발판을 굳혀 나가 南北을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장벽들을 하나씩 하나씩 段階的으로 除去함으로써 平和統一을 自主的으로 이룩하자는 것이다. 12)

北韓은 如前히 不當한 條件을 내걸고 南北調節委의 再開를 拒否하고 있기 때문에 南北對話가 당장은 더 어렵게 된 것 같다.

確實히 南北對話는 險難한 길이다. 그러나 우리는 7.4 共同聲明

精神을 받들고 南北對話의 成果를 위하여 참고 努力하겠다는 意志를 表明하였다.

第四項, 「우리는 緊張緩和와 國際協調에 도움이 된다면 北韓이 우리와 같이 國際機構에 參與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우리는 지난 72年 5月 北韓의 WHO 加入決定으로 從來의 北韓 沮止外交의 限界를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取해온 北韓에 對한 封鎖政策의 止場은 WHO 「쇼크」에 對한 適切한 対応이요, 앞을 展望한 賢明한 決定이다.

第五項 「國際聯合의 多樣 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우리는 北韓과 함께 國際聯合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우리는 國際聯合加入前이라도 大韓民國代表가 參席하는 國聯總會에서의 韓國問題討議에 北韓이 같이 招請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

UN에서의 同時加入, 同時招請 不反對는 6.23 宣言에서 가장 核心을 이루는 것으로서 「現狀維持를 기초로 한 平和共存의 次元과 現狀打破가 前提되는 國土統一이라는 次元의 矛盾을 現實의 바탕위에서 克服하려는 苦惱의 表現」<sup>13)</sup> 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UN 體質의 變化를 비롯한 國內外 與件의 變化는 우리에게 從來와 같은 「唯一 合法性」에만 사로잡힌 名分外交를 더 이상 持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南北韓의 UN 同時加入 또는 同時招請 不反對는 지금까지의 外交政策 特히 UN 外交의 큰 轉換을 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分斷狀態를 現實的으로 받아들임으로서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追求하는 積極的 姿勢를 보여 주었다.

勿論 南北同時加入은 國家承認도, 우리의 統一努力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며 北韓과의 關係改善을 通한 平和的 方法에 依하여 統一로 이끌기 위한 中間段階로서 不可避한 必要惡이라고 할 수 있다.

第六項 「大韓民國은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모든 國家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이며 우리와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들도 우리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을 促求한다」

우리와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國家와도 互惠平等의 原則下에 門戶를 開放하겠다는 것은 韓國의 對共產圈外交政策이 過去의 消極的 拒否에서 積極的 接觸으로 크게, 그러나 조심스럽게 轉換했음을 밝힌 것이다

이와 같은 門戶開放政策은 共產國家와의 敵對關係의 改善으로 우리의 國家利益을 極大化하자는 韓國外交의 現實化와 自信感의 表明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蘇聯 및 中共과의 關係改善은 韓國의 安保와 統一努力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 考慮要因이 되고있다. 또 反面에 우리 友邦들의 北韓接近에 있어서의 過速現象을 견제하려는 目的도 있다.

어떻든 開放政策은 共產圈 指導勢力의 對韓國觀를 變化好轉시킴으로써 北韓에 對한 支持熱이 冷却되어 갈 것이다.

第七項 「大韓民國의 對外政策은 平和善隣에 그 基本을 두고 있으며, 友邦들과의 既存紐帶는 이를 더욱 鞏固히 해나갈것임을 再闡

明한다.」

우리는 平和善隣을 對外政策의 基本으로 하기 때문에 平和를 愛護 尊重하는 그 어떤 國家와도 善隣關係를 맺는다. 이는 韓國外交의 多邊化로 平和的 統一을 다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러한 全面的인 善隣關係의 追求가 이제까지 우리를 支援해 준 友邦과의 既存紐帶를 鬆弛는 일은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더욱 公高히 하겠다는 것을 거듭 밝히고 있다.

以上 平和統一外交의 7個 項目을

- ① 統一에 對한 基本原則
- ② 「유엔」등 國際機構에 對한 態度轉換
- ③ 果敢한 門戶開放 등으로 變約할 수 있다.

어떻든 6.23 「平和統一 外交宣言」은 이제까지의 統一政策中에서 우리 政府가 取한 最大의 政策轉換이라고 할 수 있다.

朴大統領은 6.23 宣言의 趣旨에 對하여 「南北對話의 經驗과 國際情勢의 推移에 비추어 民族의 宿願인 祖國統一의 條件을 實質的으로 改稱하기 위한 우리의 平和統一外交政策」이라고 하였다.

兎로 6.23 宣言은 우리의 平和統一接近意志와 忍耐努力의 集中表現이며 多元化解 가는 國際情勢變化에 能動的으로 適応對處하려는 現實外交로서의 轉換이다.

그 具體的 表現으로 北韓을 包含한 共產國에 對해 이제까지의 外交的 閉鎖政策을 門戶開放政策으로 轉換했다는 事實을 들 수 있다.

이같이 6.23 宣言에 나타난 韓國外交政策 特히 對 UN 政策에

있어서 北韓과의 國際機構 參與默認과 北韓과의 U N 同時加入 默認은 새로운 統一外交의 幅넓은 伸縮性을 보이는 것으로서 오래동안 累積되어 온 國際政治上의 變化를 吸收하고 葛藤을 解消하여 이를 現實化시킨 것이다.

지금까지 지루하게 억매어 있던 名分外交를 後退시키고 現實을 現實대로 大胆하게 認定하면서 實利追求의 現實外交로 強袞한데 그 意義가 있다.

6.23 宣言에 依한 外交現實化의 意義와 效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祖國의 平和統一이 이 民族의 至上課業임을 内外에 分明히 밝혔다.
- ② 北韓을 事實上的의 政權으로 認定했다.
- ③ 北韓과의 暫定的인 平和共存을 公式化함으로써 對U N 外交와 對北方 外交를 同時에 打開할 수 있는 契機가 되었다.
- ④ 韓半島 緊張緩和의 制度化는 世界平和에 寄與할 것이므로 韓國에 對한 國際的 「이미지」가 크게 好轉될 것이며 平和統一 與件의 改善이 期待된다.
- ⑤ 北韓을 國際舞台로 誘引함으로써 그들 持有의 閉鎖體制가 漸次 開放體制로 變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 ⑥ 脫「이데올로기」 脫體制의 開放外交는 韓國外交의 成長과 自信을 内外에 誘示할 뿐 아니라 特別히 親共的 中立國 및 共產 圈과의 關係改善은 이제까지의 北韓外交의 虛實을 立証하는 契機가 될 것이다.



c) 北韓의 反應

6.23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은 國內는 勿論, 國際的으로도 緊張緩和를 爲한 果斷性있는 措置라고 全幅的인 歡迎과 讚辭를 받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6.23 宣言이 發表된지 「10 時間 後인 6 月 23 日 午後 8 時 께요」 共產黨 總秘書 「후사코」 一行의 北韓訪問을 歡迎하는 平壤市 市民大會에서 金日成의 演說을 通하여 우리의 誠實한 提議를 拒否하고 다음과 같은 이른바 五大綱領을 提示해 왔다.

- ① 南北사이의 軍事的 對峙狀態를 解消시키고 緊張狀態를 緩和시키며
- ② 南과 北사이의 政治, 軍事, 經濟, 文化 等 多方面的인 合作과 交流를 實現하고
- ③ 北과 南의 各界各層 人士들과 政黨 社會團體 代表들로 構成되는 「大民族會議」를 召集하고
- ④ 現存制度를 當分間 그대로 두고 南北聯邦制를 實現하며 國號는 「高麗聯邦共和國」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
- ⑤ 單一한 高麗聯邦共和國으로 U N 에 加入하여야 한다.

北韓은 如前히 南韓의 段階的 接近을 拒否하고 軍事問題의 優先的 解決과 各部門의 同時的 合作 및 交流를 固執하는 主張을 되풀이 하고 있다.

「大民族會議」 召集主張은 6.25 直前의 南北政治協商主張의 變形에 不過하며 全民族 單一協議體 構성을 앞세운 政治合作을 企圖하면서 韓國의 國論分裂을 助長激化시킬려는 底意와 南北調節委의

無力化를 노린 統一戰線戰術의 一環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北韓은 6.23宣言의 UN同時加入을 反對하고 60年以來  
되풀이 하여 온 소위 南北聯邦制에 「高麗」를 붙인 高麗聯邦共和  
國號를 가지고 單一國家로 UN에 加入하자고 했다.

元來 南北聯邦制는 統一志向성과 分斷固定化의 Yanus 的 兩面性  
을 가진 것이었다. 具體적으로 말하면 「兩조선 革命」의 與件이  
有利하게 展開되어가고 있다고 判斷하면 南北聯邦案을 赤化統一을  
爲한 人民革命的 立場에서 다루어 질 수 있고 反對로 兩조선 革  
命戰略이 難國에 후달쳐 그 推進이 如意치 못할 때에는 聯邦制案  
을 南北間의 共存關係維持 및 自己體制의 保全이라는 現實的 立場  
에서 다룰 수 있는 伸縮性을 가진 戰略的인 것에 不過하다.

勿論 主·客觀的 現情勢의 推移가 緊張緩和와 平和共存을 指向하  
고 있는 것을 北韓側도 認定하고는 있는 것 같다.

그러나 北韓은 南北韓의 UN同時加入案을 反對하는 理由로서  
첫째, 2個國 同時加入은 分裂의 永久化를 固着시킨다.

둘째, 이는 오히려 恆時的인 緊張과 戰爭의 禍根을 促進시킨다.

셋째, 兩韓은 UN에 들어 갈 資格이 없다.

넷째, 帝國主義 植民地分割政策이다.

다섯째, 東·西獨의 UN加入과 韓國問題는 別途의 問題이다.

여섯째, 한 民族의 內部問題를 紛爭問題로 解決해서는 안 된다」

등을 들고서<sup>14)</sup> 從前과 다른없이 駐韓美軍의 撤収 등 軍事問題의  
優先的 解決을 南北聯邦制實現의 前提條件으로 提示하고 있는 것을  
보면, 高麗聯邦共和國案은 對兩革命戰略의 一環으로 提起하고 있음이

分明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北韓은 金日成이 高麗聯邦制를 提示한 以後 「高麗聯邦共和国」을 支持하는 宣傳과 群衆集會를 連日 開催하고서 統一은 오직 그들만이 繼續 渴求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U N 同時加入案은 「두개의 韓國」을 固定化하여 民族分裂과 國土分斷을 永久化하려는 것이라고 非難하고 高麗聯邦國案을 내세워 오히려 韓國에게 民族分斷의 責任을 뒤집어 씌우려는 奸惡한 策略임이 分明하다. 兩北韓 U N 同時招請은 希求하나 同時加入은 反對하며 民族的 同質性을 찾기 前에 聯邦形成의 理念的 基礎없이 「高麗聯邦共和国」이라는 單一國號 밑에서 加入한다는 것은 論理的 矛盾에서 뿐만 아니라 同聯邦制의 本質부터가 源泉의 虛構性을 지니고 있다는 點에서 全적으로 正當化될 수 없는 것이다.

北韓은 繼續하여 8.28 비방聲明과 9月 26日의 이른바 「北韓 備忘錄」을 通하여 6.23 宣言의 取消을 屢次 要求하고 있으며 다시 10月 16日 서울側의 南北調節委 再開要求에 對하여도 北韓은 6.23 宣言의 取消同意를 先行要件으로 내걸고 이를 拒否하고 있다. 15)

## 第5章 6.23 宣言에 對한 輿論指導層의 意識構造

### a) 分 析

冷戰體制가 가시고 緊張緩和와 和解의 秩序가 굳혀져 가는 國際情勢속에서 韓半島는 解氷潮流에 크게 뒤떨어져 있었다.

이 民族은 누구나 平和的 南北統一의 達成을 念願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平和統一을 成就할 수 없는 條件과 狀況속에 놓여 있다는 것을 否定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民族的 悲願인 統一이 一朝一夕에 이루어 지지 않는 以上 能動的으로 周邊情勢에 對処하여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는 것이 우리가 當面한 最優先課題가 아닐 수 없다.

그가운데 相互門戶 開放으로 漸進的 段階的 統一接近을 積立해 가면서 民族의 同質性을 維持할 수 있는 길을 다져 나갈 수 있는 指標를 세워준 것이 이번 6.23 措置에 依한 外交現實化라는 點에서 國內外的으로 大歡迎을 받고 있다.

그러나 現在 北韓의 一方的인 생트짐으로 南北對話가 中斷되고 事實上 統一에로의 接近試圖는 不振狀態에 빠졌고 外交的인 對立은 深刻해 가고만 있는 느낌마저 주고 있는 現狀況은 一部 慎重論者 乃至는 時期尚早論者들의 意識에 抵抗을 加重시키고 있는 것 같은 感이 없지 않다.

한편 6.23 措置가 오히려 晚時之感이 있다고 積極 肯定하면서도

戰後 4半世紀동안 國民意識속에 內面化되고 있던 統一意識은 「反共統一」 「滅共統一」, 「勝共統一」등의 口號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直線的, 全面的으로 統一을 指向하는 것이었으므로 6.23 宣言에 나타난 過渡的 迂回的 段階的 統一接近 方案을 統一의 遲延 乃至는 拋棄로 보는 懷疑的 反應도 없지 않다.

특히 學生層은 앞으로의 「UN 同時加入」과 「南北共存」이 이제까지의 「唯一合法政府」 및 「UN 統轉原則」에 따른 正統意識에 衝擊을 받았고 違憲이 아니냐는 葛藤을 보이고 있다.

元來 「平和共存」 「南北協商」등의 用語는 共產主義者들이 즐겨 使用해 왔다는 事實때문에 이것은 容共的, 否定的 概念으로 「타부」視된 用語이다. 따라서 오늘날 統一論議에 있어서 「南北對話」와 「共存」에 對한 肯定과 否定的 對立은 一般 國民意識에는 解消하기 어려운 葛藤이며 「디렘마」이기도 하다.

한편 安保問題에 있어서도 6.23 措置로 弱화된다는 主張과 오히려 強化된다는 主張이 엇갈리고 있다.

輿論指導層을 大凡하게 知識層으로 보고 그들의 意識構造를 便宜上 寬容과 現實感覺에서 環境에 能動的으로 適應하면서 實利를 追求하는 適應觀念型과 唯一合法性의 否定을 곧 容共이요 敗北主義라고 하는 固定觀念型으로 類型化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適應觀念型은 6.23 措置를 全幅的으로 歡迎하고 肯定하는 多數派로 나타났고 固定觀念型은 그와 對立되는 少數 否定論者이다.

適應觀念型이 6.23 宣言을 支持하는 主張은 다음과 같다.

- ① 실속없는 名分外交를 止揚함으로써 統一外交의 主導權을 完全히 掌握했다.
- ② 韓半島의 緊張緩和를 先導하여 國際解氷「무드」에 寄与
- ③ 韓國의 Image가 改善될 것이며 國際照明이 더욱 밝아질 것이 期待된다.
- ④ 武力統一을 完全히 排除하고 南北對話의 實質的 促進
- ⑤ 自信있는 韓國外交의 發展的 姿勢의 誇示
- ⑥ 適時的 效果的 措置이며 「世界속의 韓國」으로 飛躍할 수 있는 礎石을 다졌다.
- ⑦ 平 約인 善意的 體制競爭이 可能하게 되었다.

固定觀念型的 反對主張은 다음과 같다.

- ① 「두개의 韓國」을 固定化하는 処事다.
  - ② UN 軍의 駐韓名分 喪失
  - ③ 따라서 우리의 武裝解除를 招來한다.
  - ④ 힘의 空白으로 安保를 危殆롭게 하고 「決定的 時期」를 스스로 提供하는 結果가 된다.
  - ⑤ 民族分斷의 責任을 우리가 뒤집어 쓰게 된다.
  - ⑥ 國際적으로 北韓接近을 加速化하는 結果가 된다.
- 두 型이 意見을 같이 하고 있는 點은 다음과 같다.
- ① 北韓은 對內的으로는 分斷責任을 轉嫁하고 對外的으로 「두개의 韓國」論을 利用하면서 더욱 平和宣伝攻勢를 激化할 것이다.
  - ② 北韓의 軍事問題解決優先主張은 韓國의 安保를 危殆롭게 한다.

- ③ 南北關係 改善은 쉬운 것부터 段階的으로 実績을 쌓아 올리  
는 것이 좋다.
- ④ 第2의 6.25 慘劇을 絶對로 防止하여야 한다.
- ⑤ 使命感과 긍지와 自由体制의 優越에 對한 信念을 가지고 모  
든 難關을 總力外交로 克服해야 한다.
- ⑥ 國民的 一體感으로 統一을 向한 国力培養
- ⑦ 「두개의 韓國」論 克服이 重要
- ⑧ 南北對話의 利得에 懷疑的인 層도 對話의 統行에는 贊成하고  
있다.

[ 參考資料 ]

경향신문,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전북신문  
 世代. 73年. 8月号  
 政經研究. 73年 7月号  
 全北대학교, 法政大學, 政外科 4年生, Report.

b) 對 策

6.23 宣言에 依한 平和統一 外交政策의 成功的 支援은 全國民  
 的 課題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 意識속에 否定的 葛藤과  
 抵抗이 도사리고 있다면 하루 빨리 이를 解消시키고 「暫定的 過  
 渡期」를 最小限으로 短縮시켜 平和統一을 期必 達成하겠다는 點에  
 主眼을 둔 對備策이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目的을 위해 몇가지 方案을 提示코자 한다.

① 統一教育의 再編

7.4 南北共同聲明 및 6.23 措置는 事實上 南北共存을 暫定的으로나마 認定하고 있다. 相對便을 否定하는 南北關係가 對決의 關係에서 交流의 關係로 進路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의 現狀이다.

따라서 從來의 統一의 意味 또는 概念의 修正이 不可避하게 되었다. 「두개의 韓國」論을 克服하고 모든 葛藤을 吸收解消할 수 있는 統一概念의 定立이 必要하다.

② 象徴과 口號의 再檢討

尙今도 冷戰感覺을 풍기는 象徴口號가 그대로 使用되고 있는 것이 많다. 우리 的 現狀이 달라지고 있다면 그 變化에 맞는 象徴과 口號가 새로히 案出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敗北主義나 感傷論을 止揚하고 韓國이 世界를 보아야 한다는 要請에서 자랑스럽게 成長한 韓國像을 内外에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③ 反共教育의 再編成

從來의 無條件的 反共 乃至는 蠻行置重의 皮相的, 形式의 反共教育을 脫皮하고 對話있는 對決에 對処할 수 있는 能力을 培養하여야 한다.



④ 安保態勢의 強化

금번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中東戰爭은 局地戰爭의 危險性을 다시 提起했다. 中·소의 關係改善을 追求하면서 美軍 駐韓問題에 變動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⑤ 弘報活動의 強化

北韓은 分断責任을 韓國에 轉嫁하는 攻勢를 海外교포에게 置重할 것이 豫見되므로 海外교포에 對한 平和統一 外交政策의 弘報가 한층 強化되어야 할 것이다.

⑥ 自由民主体制의 内実과 國民的參與

庶政을 刷新하고 不條理를 一掃하여 大衆과의 乖離를 解消하고, 國民的 不滿의 生産的 轉換이 한층 要請된다. 새마을 運動 深化와 經濟構造의 취약性 補強으로 國民的 合意와 國民的 參與를 獲得하여야 한다.

## 第 6 章 結 言

70年代 國際權力構造는 對決의 兩極體制에서 和解의 多極體制로 移行하고 있다. 脫冷戰・脫「이데오로기」의 解決協商과 現狀維持를 基調로 하여 平和共存을 위한 새로운 秩序의 再編成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그 特徵的 趨勢라고 할 수 있다. 重要한 要因으로서 는

- ①核均 衡과 核貯藏의 飽和
- ②美・소의 影響力 弱화와 中共의 地位의 相對的 向上
- ③冷戰秩序에 挑戰하는 群小新生國家의 大舉登場과 政治經濟上의 平等權 및 參與權의 要求
- ④各國의 實利追求에 따른 友好와 敵對關係의 多樣化 등을 들 수 있다.

歷史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그 地政學的 特殊性으로 말미암아 周邇情勢의 影響을 크게 받아 왔으며 國際情勢의 激動期에는 屢번히 大國主義의 祭物이 되기도 하였다. 오늘날의 國土分斷이란 民族的 悲劇도 따지고 보면 戰後의 새로운 國際秩序가 定着되는 過程에서 冷酷한 強國政治의 論理가 빚어 낸 結果이며 지난 4半 世紀余를 危險한 이웃・으로써 슬한 試練과 疏外를 받으며 오늘에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歷史的 教訓을 想起할 때 우리는 周邇國際情勢의 變化에 對해 恒時 남다른 깊은 關心과 注意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歷史的 教訓을 直視한 朴大統領은

主体性を 가지고 能動的으로 周辺情勢의 變化에 対処함으로써 지난 날의 不幸한 歷史의 前轍을 다시는 밟지 않겠다는 굳은 意志와 信念에 立脚하여 平和統一構想을 内外에 천명하였다. 즉 70 年の 8.15 宣言, 71 年の 南北赤十字會談, 72 年の 7.4 南北共同聲明 다시 73 年の 6.23 特別宣言 等은 緊張緩和와 平和追求의 國際的 趨勢에 主体的, 能動的으로 適應하면서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켜 民族統一史를 主導하겠다는 一大 英斷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世界속의 韓國」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70 年代의 國際情勢變化는 西方 陣營만이 認定하는 韓國에서 文字 그대로 世界가 認定하고 信賴하는 韓國으로 飛躍하지 않으면 안될 必要性이 切實해 졌다. 그러나 從來의 韓國 外交는 1948 年の UN 決議인 「韓國이 韓半島의 唯一合法政府」라는 名分때문에 「世界속의 韓國」으로 飛躍하는데 큰 葛藤과 支障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6.23 特別宣言은 現實을 現實대로 大胆하게 認定한 바탕위에서 大韓民國의 地位를 確立하고 소. 中을 包含한 共產圈과 非友好國에게 門戶를 開放하여 關係改善을 圖謀함으로써 名實相符한 「世界속의 韓國」으로 飛躍할 수 있는 跳躍台를 마련해준 것이다. 특히 6.23 宣言中 北韓에 對한 UN 同時 加入과 國際機構參與의 然認은 새로운 統一外交의 폭넓은 伸縮性을 보이는 것으로서 韓半島의 分斷을 固定化하지 않으면서 現實을 認定하고 同時에 多元化해가는 國際潮流에 能動的으로 對處하려는 現實外交 나아가서는 實利外交로의 大轉換일 뿐 아니라 世界를 向한 韓國外交의 成長을 中外에 誇示한 大英斷이기도 하다. 朴大統領의

平和統一外交政策의 闡明은 우리의 伸長된 国力과 10月維新으로 다져진 總和體制가 뒷받침이 되었음은 勿論이요 北韓과의 外交對決에서도 能히 이길 수 있다는 우리의 自信과 信念이 反映된 것이다.

6.23 特別聲明이 發表된 後 國內外的 全幅的인 支持를 얻자 北韓은 從前의 不當한 主張만을 되풀이 하면서 6.23 宣言을 民族分裂路線이라고 非難하고 있다. 元來 南北同權化政策의 一環으로 提示했던 聯邦制案과 單一國號에 依한 UN 同時加入案은 復古意識과 民族感情을 刺戟하여 南韓의 國論分裂을 노린 虛構한 常套的 宣傳에 不適當한 것이다. 우리가 北韓의 存在를 事實上的 統治實體로 認定하고 UN 同時加入을 默認하겠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緊張緩和와 實利追求의 現國際潮流에 積極的으로 適應하면서 韓半島의 平和定着과 統一與件의 實質的 改善 및 成熟을 위한 不可避한 政策的 考慮이며 過渡的 暫定措置인 것이다. 「한 民族, 두 국가, , 두 政府」를 받아들인 東·西獨의 境遇와는 달리, 우리는 다만 「하나의 民族, 하나의 國家, 두개의 政府」를 現實的인 次元에서 認定할 따름이며, 우리에게서 單一國家로서의 統一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는 이미 南北對話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體驗했다. 하물며 平和統一 念願의 達成은 더 苦된 險路임이 分明하다. 北韓은 또 다시 同族相殘의 悲劇을 挑發하려 들지도 모른다. 最近의 北韓動態는 7.4 南北共同聲明精神을 유린하는 行爲가 頻繁하다. 그들은 계속 「分斷責任」을 우리에게 轉嫁하고 있다. 元來 北韓은

① 軍事費의 過重한 支出과

② 6 個年 經濟計劃 ( 1971 - 1976 ) 의 遂行을 위하여 南北對話에 應하였다 한다. 註 16 ) 그런데 北韓은 所謂 「備忘錄」에서 現在 南北對話가 進歩를 보지 못하는 理由를 「美軍의 南韓駐屯과 韓國의 內政에 干涉하며 韓國사람끼리 對話를 進行하는데 妨害해 온 까닭」 이라고 前提하고 統一의 基本障物은 美軍駐屯에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註 17 ) 北韓은 南北對話後에도 冷戰感覺을 버리지 못한 채 계속 軍備를 增強하면서 南韓에 對한 內政干涉과 挑發을 일삼고 있다. 註 18 ) 앞으로 더 많은 挑戰이 予見된다. 우리는 지금 反共意識이 解弛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共產勢力과의 平和共存은 어디까지나 힘의 優位를 背景으로 한다는 基本的인 理致를 잊어서는 안된다. 이제 南北韓關係는 바야흐로 平和統一을 前提로한 共存時代로 접어들었다. 激動間의 새 外交政策轉換에 즈음하여 무엇보다도 으뜸가는 國家的 要請으로 되는 것은 總力外交의 展開이며 또 이에 대한 믿음직한 뒷받침이다. 따라서 北韓의 끈질긴 外交攻勢와 對南誹謗을 封鎖하고 6.23 宣言이 志向하는 南北對話의 促進과 平和統一의 國際的與件을 造成하는 데는 어디까지나 民主體制의 內實위에 國民總和와 国力培養으로 總和의 礎石을 着實히 다져 나가야 할 것이다.

< 註 解 >

- 註 1 ) 政經研究, 73年7月号 p.149 ~ p.150
- 註 2 ) Foreign Affairs Jan. '73, p.286
- 註 3 ) 국토통일원 ; 分断国 U.N 同時加入問題가 韓國에 미칠 影響 및 对策 ; p.4
- 註 4 ) 政經研究 73年3月号 p.111
- 註 5 ) 東亞日報社 : 東西独과 南北韓 ; p.426
- 註 6 ) 北韓, 73年7月号, p.34
- 註 7 ) 北韓, 73年7月号 pp.35 ~ 36
- 註 8 ) 国土統一 73年7月号 p.75
- 註 9 ) 政經研究, 73年6月号 p.40
- 註 10) 政經研究, 73年7月号 pp.40 ~ 41  
世代, 73年8月号, pp.123 ~ 124
- 註 11) 政經研究, 7月号 p.52
- 註 12) 国土統一院 ; 国土統一, 73年10月号 p.142
- 註 13) 世代, 73年8月号, p.126
- 註 14) 国土統一, 73年10月号, p.132
- 註 15) 조선일보, 1973.10.17 日字
- 註 16) 国土統一院, UN에서의 韓國問題討議 展望 및 对策 pp.71~74
- 註 17) 国土統一院 ; 国土統一, 73年 10月号, p.131
- 註 18) 国土統一院 ; 国土統一, 73年 10月号, pp.131 ~ 132

< 討 議 經 過 抄 錄 >

主 題 :

日 時 : 1973 年 11 月 14 日 午後 3 時

場 所 : 全北大學校 法政大學 學長室

主 題 發 表 : 梁 曙 懿 ( 全北大學校 法政大學教授 )

司 會 : 蔡 中 默 ( 全北大學校 法政大學學長 )

討 議 參 加 : 宋 玄 洲 ( 全北大學校 文理科學教授 )

柳 盛 根 ( 全北大學校 商科學教授 )

金 吉 星 ( 全北大學校 法政大學教授 )

趙 英 彬 ( 全北大學校 法政大學教授 )

卓 鎮 煥 ( 全北大學校 法政大學教授 )

司 會 : 朴 正 熙 大 統 領 은 6.23 特 別 聲 明 을 通 하 여 北 韓 의 「 유 언 」  
加 入 및 國 際 機 構 에 의 參 與 를 反 對 하 지 않 는 다 는 등 의 內 容  
을 骨 子 로 하 는 統 一 의 與 件 을 實 質 的 으 로 改 善 하 기 為 한  
7 個 項 目 의 平 和 統 一 政 策 을 發 表 하 였 는 데 우 리 는 이 宣 言  
을 어 麼 げ 받 아 드 리 며 또 한 그 基 本 方 向 은 어 麼 有 다 고  
생 考 하 십 니 까 ?

宋 玄 洲 教 授 : 이 런 宣 言 은 우 리 民 族 이 共 產 主 義 化 되 지 않 고 自 由  
民 主 主 義 의 優 越 性 을 계 속 유 지 하 면 서 統 一 을 이 룩 하 고 또  
한 自 由 와 安 全 을 누 릴 수 있 다 는 大 前 提 下 에 憲 法 의 條  
두 리 안 에 서 의 우 리 의 外 交 政 策 에 百 八 十 度 轉 換 을 가 져 온

데 큰 意義가 있다고 봅니다.

對決보다는 和解를, 對立보다는 協力을, 그리고 巴야흐로 解氷「무드」속에서 어떻게든 平和를 維持하려는 國際情勢에 對應하여 우리의 統一을 위한 努力을 우선 申明하고 友邦에게는 더욱 더 우리에게 協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고, 中·蘇를 위시한 共產諸國에게는 그들의 對外政策에 새로운 行動領域을 넓혀주는 계기를 주었다고도 볼수 있겠지요

金吉星教授：統一을 위한 3段階로 韓半島內에서의 緊張緩和를 促求한 朴大統領의 70年 8月 15日 宣言以後 우리나라의 外交는 變化無雙한 國際情勢에 보다 柔軟性 있는 態度를 取해왔는데 北韓은 南北對話를 逆利用하여 平和를 假裝한 虛偽宣傳과 武力挑發을 계속 劃策하고 있으니 그들은 지금도 赤化統一을 위한 모든 手段과 努力을 動員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中共이 「유엔」에 加入함에 따라 東南亞地域國家들은 漸次 對共產圈·接近策을 모색하게 되고 지금 우리와 修交하고 있는 北歐의 몇個國들은 今年들어 이미 北韓을 承認했으며 其他 몇개國이 또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하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教條적이고 排外적 挑戰의 實體인 北韓과의 對話를 통한 平和의 모색이란 어렵고도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으며 朴大統領의 英斷으로 北韓을 國際舞臺에 등장시켜 公開廣場에서 批判을 받을 수 있도록 소위 平和壓力을 加한 이번 宣言은 이제 冷戰의 遺産을 깨끗이 清算하고 國際的 保障下에서 우리의 宿願인 平和統一을 達成해 보겠다는 民族指導者로서의 愛國的인 決斷이며 時期에 맞는 現實的 政策表明이라 볼 수 있습니다.

趙英彬教授：이번 聲明의 基本方向은 역시 國際機構에의 北韓參與를 反對하지 않는다는 點에 있겠습니다.

그러나 北韓의 「유엔」加入이나 國際機構 參與에 關하여 言及한 第4項 및 第5項에도 「統一에 障礙가 되지않는」다는 前提條件을 붙였고 對共產圈 開放體制를 보다 積極的으로 表明한 第6項에 대하여 友邦과의 既存유대關係는 이를 強化함에 不變함을 再闡明한 第7項을 보면 우리의 政策變化가 어디까지나 現實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國際情勢의 緊張緩和라는 解氷「부드」를 타고 多元的 總力外交를 指向한 우리나라가 自主的으로 主體性에 立脚한 能動的인 國際社會에의 參與를 宣言한 것입니다. 또한 6.23 宣言은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國基의 一部를 이루었던 「유엔」의 承認이란 큰 망패를 버리고 從來의 敵性 非敵性概念을 完全히 없애버린 셈이며, 互惠平等의 原則에 따라 理念과 體制를 脫皮하여 門戶를 開放하겠다는 것이므로 假令 北韓의 兩北對話에 대한 無誠意를 새로운 方面에서 促求할 수

있게 되고 強大國間의 현상유지를 利用해서 우리의 平和  
統一에 대한 기쁨을 마련할 수 있고 나아가서 中東國家  
들과의 交易으로 国力培養을 꾀할수도 있게 되었지요

卓鎮煥教授 : 간단히 말해서 이번 宣言은 冷戰體制가 가시고 和解의  
질서가 굳혀져가는 國際政治의 主流에 能動的으로 대처한  
指導者의 決斷이며 民族의 至上課業인 統一問題를 단계적  
으로 해결하려는 政策原則을 宣言한 것입니다.

司 會 : 결국 契約해서 말한다면 이번 宣言이 祖國의 平和的統一  
이라는 民族의 念願을 達成하려는 民族至上의 問題가 現狀  
維持속에서 和解와 緊張緩和를 追求하는 國際政治의 主流  
에 便乘해서 一大 轉換點을 마련한 것이고 이러한 政策  
轉換이 어디까지나 現實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時期에  
적절한 措置라고 하는 것이 共通된 意見인것 같습니다.  
問題는 이러한 우리의 努力을 北韓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드릴 態勢를 갖추고 있느냐? 이겠지요

그러면 이만 結論짓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23 宣言에서 우리가 主張한 南北韓 「유엔」 同時加入  
案에 대해서 北韓은 單一聯邦制를 提案하였는데 이 問題  
에 대해서 몇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柳盛根教授 : 朴大統領의 6.23 宣言에서 「유엔」의 多數會員國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서 南北  
韓이 同時에 「유엔」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겠다고

宣言한 것은 最近 西獨 東獨의 「유엔」加入 申請에서 본  
 바와 같이 「유엔」의 政策이 分斷國들의 「이너지아티브」에  
 의하여 變化하려는 段階에 處한 實情이므로 이번 우리의 統  
 一政策宣言은 北韓에 대해서 機先을 制한 措置이고 따라서  
 機先을 制壓당한 北韓에서는 當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지난 몇년동안 「유엔」等 諸般國際機構에 加入하려고  
 끈질긴 努力을 해온 事實만 보아도 이번 同時加入案은 그들  
 이 먼저 提案하려고 했던 것임에 틀림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單一聯邦制라는 새로운 提案으로 우리의 主張  
 에 反對하고 나섰는데 이것은 實際로 그들이 行動하고 있는  
 國際政治政策과는 矛盾된 措置라고 볼 수 있으며, 따져보면  
 그 裏面에는 「언커크」解体 駐韓美軍撤収, 美軍援名分喪失等を  
 固執하고 우리의 反共體制를 무너뜨리는 等 內政干涉을 꾀하  
 고 끝내는 그들의 所謂 赤化統一을 完遂하겠다는 底意가 숨  
 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卓鎮煥教授：北韓에서는 우리의 同時加入提案을 「分斷을 固定化」하려  
 는 政策이라고 歪曲宣傳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提案은 어디  
 까지나 祖國의 平和統一을 達成하기 위한 過渡的 措置임을  
 前提로 한 것이며, 分斷의 永続化를 招來할 뿐이요 實現性없  
 는 從來의 正統性主張을 一貫하던 態度를 버리고, 分斷現實을  
 直視하고 이를 認定하되, 좀더 實現性있는 次元에서 南北對話  
 를 促進하고 平和統一을 達成해 보겠다는 우리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그들의 끈질긴 平和攻勢는 얼마나 偽裝되고 있는  
가를 如實히 보여 주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것은 北韓이  
71年 8月 以後 中共의 對外政策을 답습 더 많은 나라로  
부터 承認받고져 劃策해 왔고 이미 우리가 外交使節을 駐  
屯시키고 있는 나라에 맹렬한 外交交涉을 벌리고 있는 點  
또는 우리가 加入하고 있는 國際機構에의 加入等의 實例로  
서 알 수 있으며 그들이 내놓은 單一聯邦制가 어떠한 意  
圖로 내놓여진 것이냐 하는 것은 이 矛盾된 Double Play  
의 실제 行動으로 充分히 類推해서 判斷할 수 있는 것입니다.

趙英彬教授：北韓은 統一보다는 分離를 指向했으며 그들의 外交的  
努力도 그러한 方向으로 行하여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金日成」이가 口號로는 平和統一을 의치고 있으면서도 「두  
개의 韓國」政策을 實踐으로 行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韓國에서의 現狀維持를 바라고 있는 中共이나 蘇聯의 影響  
도 적지 않겠지요

何如튼 이번 우리의 「유엔」 同席要求에 대해서 反射的으로  
내놓게 된 北韓의 聯邦構成提案은 北韓의 外交路線에도 混  
線을 빚었으며 그들의 統一에 대한 無誠意나 平和에 대한  
偽裝攻勢가 分明히 露呈된 結果라고 보고 싶습니다.

宋玄洲教授：北韓은 統一問題를 소위 平和攻勢의 武器로 삼고 늘  
非現實的이요 實現不可能한 提案으로 相對方을 기만하고 無  
刀化를 꾀하였으며 武力挑發을 일삼아 왔는데 그들이 南北

對話를 스스로 中斷하고 우리 側에 責任 轉稼를 한 점이  
라던가 聯邦制의 提案같은 것은 아직도 時代逆行的인 冷戰  
的 手法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겠지요 다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分明히 해두어야 할 점은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지 않겠다는 項目이겠는데 아직도 우리가 늘 警戒해  
야하고 그들이 언젠가는 굴복해 올것을 믿고 忍耐, 誠實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司 會 : 한마디로 말해서 「韓半島內에서의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從  
前의 外交路綫을 緊張緩和와 國際協力이라는 最近情勢에 부  
응해서 現實적으로 轉換한 것이며 여기에 우리가 언젠가는  
北韓이 당일 聯邦制를 拋棄하고 「유엔」으로 기어 들어오  
리라는 期待를 가지고 우리가 「이니시아티브」를 取한  
점에 外交적으로 機先을 제했다는 意義가 있습니다.

그러면 셋째번 問題로 이렇게 해서 南北韓이 同時에 「유  
엔」에 加入하게 될 경우 北韓은 實質적으로 暴力에 의한  
武力統一路綫을 固守하면서 韓半島內에서의 緊張關係를 繼續  
高調시키고 한편으로는 「언커크」解体나 「유엔」軍 撤収  
南北韓減軍을 繼續 主張한다면 우리의 安保에 어떤 影響을  
미치지 않을까요?

金吉星教授 : 우리의 安保에 影響을 미친다해도 直接的일수는 없고  
間接적이고 長期的인 것으로 볼수 있음에 不過하겠읍니다.  
우선 「언커크」는 從來의 形態대로 存続하기가 困難하게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겠지만 「유엔」軍司令部設置는 安保理의 決議에 따른 것이므로 이를 解体하려면 美國이 拒否權을 行使하지 말아야 합니다. 게다가 駐韓美軍의 實質的存在는 韓·美間의 合意에 뚜렷한 變動이 없겠지요. 오직 安保에 影響을 미치는 것은 北韓의 侵略性을 뒷받침해 주는 中·蘇의 背後勢力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부응한 우리 安保의 國際的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外交的 刀点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宋玄洲教授：好戰性을 지닌 北韓을 國際社會에서 孤立시키는 것보다는 國際社會의 一員으로 參與시켜 獨善的인 그들의 主張을 緩和시키고 따라서 우리의 도움이 될 것이며 蘇聯이나 中共의 立場으로서도 對韓政策에 있어서 勢力均衡, 現狀維持를 원하고 있다고 보면 中·蘇가 亞細亞의 平和를 위해서 韓國에 대해서도 門戶를 開放할 것을 促求한 이번 宣言이 決코 우리 安保에 不利한 影響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지요.

柳盛根教授：6.23 宣言을 계기로 앞으로 南北間의 競争은 從來의 武力競争을 止揚하고 새로운 角度에서 展開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즉 對內的으로 建設과 国力增強의 競争이 될 것이고 對外的으로는 外交競争이 벌어지겠지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安保도 內的充實에서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겠지요.

趙英彬教授：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安保는 民主的 平和統一을 目標로 한 安保概念인 만큼 強力한 指導者로 湧쳐진 國民的 總和 團結을 바탕으로 国力培養이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不安의 要因 不信의 淸초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司 會：간추려 말한다면 우리의 安保問題는 北韓의 侵略挑發을 막는 것도 重要하지만 多角的인 外交的活動, 國民의 總和團結보다 效果的인 安保, 反共教育等 여러 方面에서 생각할 수 있는 問題라고 봅니다. 그러면 끝으로 6.23 宣言이 必然的으로 結果할 反共教育面에 있어서의 차질을 어떻게 解消하고 보다 合理的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가? 하는 問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卓鎮煥教授：이제는 從前의 反共教科書에 나타난 皮相的 事實이라던가 北韓의 慘狀을 그린 經驗的 收錄만 가지고는 오늘날의 國際政治的 現實과는 맞지않는 教育이 될것은 분명하지요 좀더 巨視的인 次元에서 우리 社會体制의 優越함을 알릴 수 있는 方法이 必要합니다.

柳盛根教授：祖國의 平和的 統一이 民主體制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오늘날 國際社會의 客觀的 現實 즉 緊張緩和, 和解「무드」, 現狀維持政策等 國內外的 情勢를 보다 所상히 理解시키는 教育이 必要하다고 보며 그러한 方向으로 나간다면 必是 보다 広範하고 철저한 時事教育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吉星教授：결국 北韓의 立場으로서도 그동안 過重한 軍費支出을 해왔고 虛偽宣傳 一辺倒로 國民을 기만하는 데에도 限界性을 發見하게 되겠지요. 언젠가는 金日成 唯一體制에 금이 갈 것이며 自由의 물결이 直接 間接으로 浸透해 들어가겠지요. 그러한 意味에서 보면 現在 우리가 벌이고 있는 새마을 運動이라던가 十月 維新精神같은 어떤 國民總和를 이룰 수 있는 精神的 支柱를 세워 주어야 되겠습니다.

宋玄洲教授：그러나 그들이 侵略的根性을 버리지 않고 赤化統一을 꿈꾸고 있는限 우리는 6.25의 悲劇이 그들에 의하여 또 다시 되풀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決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舞台를 이제 世界로 옮겨 놓았을 뿐이며 더 무서운 陰謀를 꾸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政策轉換은 國際情勢의 變化에 대한 処方이지 金日成 自身の 생각은 지금도 아무 變化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6.23 宣言에서도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지 않는다는 것을 못박아 놓고 있는것 아니겠어요.



司 會：要約해서 말한다면 아무리 外廓情勢가 變했어도 反共의 根本的 姿勢는 더욱 堅固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보다 豊富하고 嶄新한 資料와 分析이 補強되어야 하며 時時刻刻으로 變動하는 國內外的 움직임을 올바르게 認識하고 보다 巨視的인 안목에서 새로움고 積極的인 態度로 適應시킬 수 있는 一線反共 指導者의 教育도 必要 하겠지요.

